



바다를 청소하는 미래 선박

이달의 표지 주인공



이수민 양(교동초 2학년)
이상충 과장(현대중공업 플랜트자재운영부)의 자녀

“아픈 물고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화가가 돼서 슬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는 수민 양의 그림에서
는 자연을 아끼는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민 양은 어느 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고 바다도
아프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니는 현대중공업에서
바다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멋진 선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자라고, 하얀 꽃이 피어있는 선박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민 양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친절한 엄마, 달리기를 잘하는 아빠, 장난꾸러기 동생 준성아와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하다는 수민 양.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수민 양이 사우 어
러분들에게 귀여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삼촌, 이모 언제나 밝게 힘내세요. 파이팅”
앞으로도 수민 양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 변치 않길 기원할게요.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7

JULY | 현대중공업 가족 2017년 7월호 발행 2017년 6월 30일



Contents



10



12



20



42



44



52

04 현대중공업그룹 상반기 임원 인사

기획 독립회사 탐방

③ 현대로보틱스

06 소개합니다

08 윤종근 대표이사 인터뷰

10 새등지, 새출발

기획 건강한 삶, 즐거운 일터

12 임직원 건강이 회사 경쟁력!

14 생생 도전기

16 건강하게 여름나기

18 앞서서 하는 스트레칭

사람 · 일

20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의장1부 선장1팀

24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26 자랑스러운 우리 사우

우수성과 즉시포상 수상자

28 한마음 한뜻으로

현대건설기계 출범식 /
현대일렉트릭 화합 행사 개최

30 미래를 말하다

현대중공업그룹 디지털 혁신

32 이달의 도전

아빠가 만드는 맛있는 요리 /
현대미포조선 김기철 사우

34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삼호중공업 김호택 사우가 김경석 사우에게

36 든든한 파트너 삼주이엔지

38 세계를 가다 러시아

40 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7월

지역 · 삶

42 이달의 모임

현대중공업 서핑클럽(HHISC)

44 보람의 일터

기술교육원 토요진로캠프

46 지역 소식

울산박물관 ‘이집트보물전’,
울산 약사동 ‘제방 유적 전시관’

48 축제의 계절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

50 가볼만한 곳

휴가철 국내 여행지

52 자녀와 함께

울산 주연자동차박물관

54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서부동 박미자 씨

56 건강칼럼

위식도 역류질환

58 나를 만나는 시간

직장인 심리상담

보람의 일터

60 회사 주요 소식

64 그룹사 소식

66 문화 포커스

68 축구단 소식

70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파워 필독싱

71 트렌드 따라 잡기 캠페인

72 현중 가족 글마당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80 생활법률

81 만화

82 쉬어가는 페이지

위기극복 의지 결집, 독립경영체제 확립

현대중공업그룹이 6월 21일 상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현대중공업 하 수 전무, 현대삼호중공업 이상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현대중공업 김형관 상무 등 10명이 전무로, 오흥종 상무보 등 36명이 상무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황동언 부장 등 10명이 상무보로 신규 선임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하반기부터 일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조선·해양 관련 부문은 임원의 10%를 감축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4월 1일부로 사업 분할된 회사들은 조직정비를 통해 독립경영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젊은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사장 승진

현대중공업



河 修
1959년생
인하대 조선
1984년 12월 입사

현대삼호중공업



李 相 鈞
1961년생
인하대 조선
1983년 8월 입사

전무 승진										
현대중공업	金炯寬	朴正植	南相勳	姜 榮	徐有成	沈華榮	宋敦憲			
현대미포조선	洪承憲	현대삼호중공업		劉榮鎬	현대건설기계		鄭駿喆			

상무 승진									
현대중공업	吳興鍾	鄭炳鶴	金忠烈	黃源哲	尹義成	黃秋補	元光植	蘇勇燮	柳暢烈
	孫正鎬	沈愚勝	李泓燮	金炳秀	金東一				
현대미포조선	全承浩	閔惠基	朴柱三	李鍾燦	현대삼호중공업		成炫哲	金石基	
현대로보티스	金東赫	徐晟喆			현대일렉트릭		金鍾吉	李振喲	權炳勳
현대건설기계	金坂盈	曹承煥	權容範						

상무보 신규 선임

현대중공업



黃 童 彦
1966년생
고려대 화공
1993년 7월 입사



朴 鏞 烈
1970년생
부산대 조선
1994년 12월 입사



鄭 喆 元
1967년생
부산대 경영
1993년 12월 입사



柳 根 燦
1970년생
고려대 신방
1997년 7월 입사

현대로보티스



沈 載 陽
1962년생
고려대 기계공학
1985년 1월 입사



崔 正 旭
1964년생
동의대 기계공학
1994년 4월 입사

현대일렉트릭



李 忠 杰
1966년생
울산대 산업공학
1991년 2월 입사

현대건설기계



田 福 文
1964년생
한국해양대 조선
1990년 1월 입사



張 煜 鉉
1961년생
전남대 기계
1985년 12월 입사



姜 明 植
1964년생
서강대 경영
1992년 2월 입사

그룹사 임원 승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상 무		許 光 熙	安 應 基	金 載 昊	상 무		鄭 任 軀		
		金 午 永	李 承 洙						

현대코스모					호텔현대				
상 무		李 秉 在			상 무		李 成 浩		

2021년 글로벌 톱 티어 로봇회사로 발돋움

지난 4월 사업분리를 통해 새로운 첫발을 댔 현대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설계·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연 8천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신공장을 준공하고,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로 본격적인 세계 로봇시장 공략에 나섰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독자 모델 생산

현대로보틱스는 1984년 10월 현대중공업 로봇사업팀으로 시작해, 이듬해인 1985년 5월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으며 스폿(Spot) 용접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후 독자 모델 개발에 매진했고, 사업 10여년 만인 1995년 6축 다관절 로봇 2종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07년에는 LCD용 로봇을 국산화하는 등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현재 40여종에 이르는 로봇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차체 용접용 로봇과 LCD용 로봇은 현대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 각각 2007년과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LCD용 로봇

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비록 일본, 유럽 등 선진기업보다 30여년 뒤늦게 로봇 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현대로보틱스는 2014년 호주 국제인증기관인 테스트 세이프(Test Safe)사로부터 도장 로봇에 대한 방폭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시장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생산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1985년 50여대를 생산하는데 그쳤지만, 2000년 5천대, 2005년 1만대의 누적 생산기록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4만3천여대의 누적 생산기록을 달성했다.

제품군(群) 다변화로 성장동력 확보

현대로보틱스는 오는 2021년까지 연간 매출 5천억원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연구 개발에만 1천여억원을 투자해 생산 제품군을 다변화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차체 내외판 및 부품 도장 로봇, 알루미늄 차체 용접 로봇 등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오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OLED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고자 6세대 하프 진공 로봇을 개발해 올해 안으로 라인업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첫 시제품 시연회를 가진 이 로봇은 자체 이물질이 잔공 작업장으로 새지 않도록 엄격한 밀폐 설계와 도장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협동 로봇에 대한 연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 로봇은 자재 운송이나 차체 조립공정에서 사람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현대로보틱스는 지난해 말부터 안전성을 강화한 '3차원 로봇 안전시스템(Safe Space Module)'을 개발해 관련 기초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그룹 미래 경쟁력 확보 주력

업체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지난해 700억불에서 2020년

980억불 규모로 매년 1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무인생산시스템, 물류 자동화기술 등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로보틱스는 개별 로봇제어기를 활용해, 공장 단위별로 수십에서 수백대의 로봇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HRMS)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2007년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 등 성공적인 공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로보틱스는 그룹 전반에 걸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과 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앞장선다는 각오다.

이미 현대건설기계 1공장에는 현대로보틱스에서 제작한 '후판 용접 로봇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증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현대로보틱스가 우리 그룹의 공정 효율과 품질 향상을 이끌며 명실상부 톱 티어(Top-tier) 로봇 회사로 성장할 앞 날을 기대해 본다.

현대로보틱스(주)

- 1984년 10월 현대중공업 로봇사업팀 시작
- 2017년 4월 현대로보틱스 출범

주소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3길 50

주요 제품 산업용 로봇, 클린용 로봇, 제어기, 로봇 자동화 시스템

홈페이지 <http://hyundai-robotics.com/>



▼ 6축 다관절 로봇



▼ LCD 운송 로봇



“시장 다변화·제품 라인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룩할 것”

독자적 원천기술과 선진화된 인프라로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세계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분주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윤종근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업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현대로보틱스가
그 역할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성장을 위한 방
향을 판단하고 제시하며, 신규 사업에 대
한 추가 투자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
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들 중 미래가
치와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현대로보틱스
가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돼,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로보틱스만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
가요?**

지난 33년간 다양한 분야의 로봇 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
량, 스마트 생산 시스템에 따른 제조 역량,
로봇 설치 및 시운전 역량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A/S 대응력이 우리의 핵
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 대의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로봇관리시스템
(HRMS)을 활용해 적기에 유지보수 시점을
안내하고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관리
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
재 현대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
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현대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은 4~5%대로, 화낙(Fanuc), 야스카와
(Yaskawa) 등 선진사에 비해 낮은 수준입
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
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품별 모델
수가 적고, 해외 영업망과 서비스센터가
많이 부족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영업망과 서비스센터를 확대
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도장 로봇, 진공용 로봇, 협
동 로봇 등 신제품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핵심 역량을 꼽는다면 어
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R&D 역량 강화에 힘써
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 개
발 투자 규모를 현재 2.5% 수준에서 점진
적으로 5%까지 확대해 주력 제품의 라인
업을 확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제
품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 육

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북남미, 서유럽, 동남
아시아 등 주요 지역별로 전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부족한 글로벌 영업망
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시장
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지 우량
기업들과 합작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가능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대로보틱스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
가요?**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보틱스는 주력 제품 경쟁
력 강화, 제품 및 시장 다변화,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창출, 해외 시장 확대 등의 전
략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매출액 5천억
원, 영업이익률 11%의 글로벌 톱 티어(Top
Tier) 로봇 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 주력 제품의 설계 개선 및 내구성 평가,
로봇 응용시스템 평가 등 각종 검증을 강화
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품 내재화 및 모듈
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접, 핸들링, 적치, LCD용
로봇 등 주요 제품군에 대해 2021년까지
약 40여종의 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주력
시장인 자동차 및 LCD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도장 로봇, OLED용
진공 로봇, 협동 로봇 등의 신모델 출시를
통해 신규 시장 진입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24시간 서비스 체제 등 서비스 사업
영역도 확대하고 고객사와 함께 해당 기업
에 특화된 로봇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현대로보틱스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세계 각국의 영업망과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대표직을 맡으셨는데, 현
대중공업그룹 임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현대로보틱스는 1984년 10월 현대중공업
로봇사업팀으로 출발해 산업용 로봇과
LCD용 로봇 사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독립법
인 출범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겠지만 현대로보틱
스 임직원은 현대정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동지를 튼 최첨단 생산 공장을 거
점으로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품질 경쟁
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구성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하는 문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
을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
겠습니다.

2021년, 글로벌 톱 티어 로봇 전문회사로
우뚝 설 현대로보틱스의 앞날을 기대해주
십시오.

'똑똑한 공장', '쾌적한 환경' 전 공정 자동화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현대로보틱스가 지난 4월 대구 신공장을 본격 가동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라인을 통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직원 휴게실과 카페테리아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춘 대구 신공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품질과 생산성, 대폭 높였다!

현대로보틱스 신공장이 들어선 곳은 과거 미국 커민스사와 현대 중공업의 합자회사인 현대커민스엔진이 있던 자리로, 부지면적만 2만3천600평(약 7만8천㎡)에 달한다.

특히 신공장은 기존 울산공장의 생산 능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장 내 각종 설비 및 기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돼, 가동 전부터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란 제조 공정의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스마트(Smart)하게 바꾼 차세대 공장 시스템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다수의 글로벌 회사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산업현장에 적용해 최적의 생산을 이끌어내는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현대로보틱스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 4월 대구 현풍에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하고, 고품질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현대로보틱스는 핵심 원천기술인 로봇관리시스템(HRMS)을 신공장에 적용해 자동화 라인에 설치된 모든 로봇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개념 공정관리 시스템인 로봇생산운영시스템(MES)을 도입, 제품의 생산 계획부터 영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 생산 과정에
컨베이어 장치와
조립용 로봇을 설치하고,
무인 운반차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대비 실적, 설비 가동 현황, 시운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 및 보안 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현대로보틱스는 주력 제품인 '산업용 로봇'의 조립, 도장, 배선 조립, 시운전, 포장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컨베이어 장치와 조립용 로봇을 설치하고, 무인 운반차(Auto Guided Vehicle)를 활용해 완성된 제품을 적재적소에 실어 나르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항온-항습-항균 설비를 갖춘 최첨단 시설에서 '클린용 로봇'을 제작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공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재 운반 등 사람이 하던 번거롭고 위험한 일을 무인 운반차가 대신하다 보니 생산성과 안전성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현대로보틱스의 지난 5월 제품 생산량은 500여대로, 250여대 수준이던 2월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연간 생산 규모 역시 기존 4천 8백여대에서 8천여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新공장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사물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도 스마트한 혁신의 바람이 불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현대로보틱스가 서 있다.

자동화된 공장 시스템에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그리고 로봇관리시스템 등을 더한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업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생산성', '품질',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현대로보틱스의 대구 신공장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간다.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산업 환경을 구축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대로보틱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대구 신공장 자동화 라인

공장 내 사무동



제품 전시실





비만·흡연 관리서 건강 식단까지 행진다.

‘직원들의 건강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이는 직원들이 건강해야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사내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우들의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드시 비만탈출에 성공하겠습니다”

5월 22일 현대중공업 건강증진센터 대교육장에는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우들의 힘찬 다짐이 울려 퍼졌다. 현대중공업 사우 100명은 이날 ‘비만탈출 다짐선서’를 시작으로 총 10주간의 비만탈출 도전을 시작했다.

비만은 여러 병의 근원이지만, 오랜 세월 굳어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한 삶이 곧 개인의 행복과 회사에서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사우들의 비만 탈

출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체중 7% 이상 또는 체지방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평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혼자서는 도전하기 힘들었던 사우들이 대거 몰리며 42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중 체지방 측정 등을 통해 100명의 사우가 올해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5월 22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체지방 관리요령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울 건강수첩 및 스마트밴드를 지급 받았다. 이후 매주 1회 사내 부속의원에서 체성분 분석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처방을 받으며 7월 말까지 10주간의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대우 과장(35세, 현대중공업 선형도장부)은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며 “몸무게 앞자리를 ‘7’자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조선 3사 사우 470여명, 금연 도전

비만 못지않게 건강에 해로운 것이 바로 흡연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임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울산 동구 보건소와 함께 매년 ‘금연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참가자들의 건강상태와 흡연 습관 등을 파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총 4천780명이 참가해 그 중 63.1%인 3천18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올해는 5월 15일 ‘금연클리닉 선포식’을 시작으로 총 216명의 사우가 금연에 도전한다. 참가자들은 6개월 간 금연 패치와 금연 껌 등 금연 보조제를 지원받고, 정기적으로 전문 상담사의 건강상담을 받으며 금연을 실천한다.

6개월 뒤에는 일산화탄소(CO) 측정과 소변검사를 통해 금연 성공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도 금연클리닉을 실시해, 올해 각각 100명과 150명의 사우가 금연에 도전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중공업MOS와 현대E&T도 금연클리닉을 시행하며 사우들의 금연을 돕고 있다.

열량 줄이고, 건강까지 담은 ‘그리팅’ 식단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올바른 식습관이다.

현대중공업 사내 식당에서는 6월부터 건강식단인 ‘그리팅(Greeting)’이 시범 제공되고 있다. 그리팅은 그린(Green)과 이팅(Eating)의 합성어로, 혈당 조절 및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사용해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한다. 열량(Cal)과 소금, 당(糖), 지방을 동시에 줄여 사우들의 건강을 챙긴 식단이다.

그리팅을 이용한 식단을 이용해 본 류철민 사우(26세, 현대중공업 조선원가회계부)는 “건강식이라 맛은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도 좋고 메뉴도 다양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6월 한 달간 그리팅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며 제공 식당과 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중공업 비만관리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현대중공업 금연클리닉 선포식



임직원의 건강한 삶이
곧 개인의 행복과
회사에서의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

▼ 그리팅 식단



“건강해지니 일상의 활력 넘쳐요!”

성공적인 직장인들은 건강을 행기며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다.
사보편집실은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으로 즐거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사우들을 소개한다.

금연으로 건강 찾고, 생활비도 아껴요!

이종후 사우 (20세,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얼마 전까지 저는 하루 15개비쯤 거뜬하게 피던 애연가였지만, 2달째 금연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주변 동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싫었고, 몸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는 팀 동료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나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첫 주에는 집중력 저하, 졸림 등 금단 현상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나니 금연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면, 물과 비타민C 영양제를 먹으며 유혹을 건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거뜬합니다. 동시에 담배 구입 비용이 사라져 생활비도 크게 절약되고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이제 담배 끊으시고, 삶의 질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산악 자전거로 삶과 스트레스 모두 ‘굿바이’

박양수 사우(36세, 현대미포조선 정도관리팀)

저는 산악 자전거(MTB)로 10kg 넘게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90kg이 넘는 체중 때문에 몸이 무겁고,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서인지 다리가 붓고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산악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처음 1년간은 운동한 만큼 많이 먹어서인지 살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체중이 급속히 줄어 요즘은 몸에 맞는 옷이 없을 정도가 됐고, 아팠던 다리도 튼튼해졌습니다.

한편, 산악 자전거를 타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업무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퇴근 후 일주일에 2~3번 가까운 곳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고, 주말에는 사내 산악자전거 동호회 '미포MTB' 회원들과 함께 영포산, 무룡산 등으로 하이킹을 떠납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산악 자전거를 타며 살고, 스트레스를 날려 즐거운 일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35년 지기 친구 ‘담배’와 절교 선언

김태봉 반장 (56세,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나이 21세, 군 입대와 함께 담배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담배와는 소위,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모처럼 즐기는 산행에서 숨이 차오르고 힘들어 하는 제 자신을 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금연펀드'에 참여했습니다. 기필코 금연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노력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담배를 꺼내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흡연하는 나로 인해 주변사람이 겪어야 하는 불쾌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오기로 다시 한 번 금연에 도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금연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견뎌보니 어느새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몰라보게 향상되었습니다.

채식으로 20대의 활기를 되찾다

정현수 과장 (37세, 현대중공업 설비기획부)

지난 5월 초부터 건강관리 목표를 세우고, 제 몸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현장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면서,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우선 체중을 7% 줄이는 목표를 세워, 식단부터 조절하고 있습니다. 간식·야식 금물, 외식 월 1회로 제한, 저녁에는 집밥 먹기 등의 철칙을 세웠고, 설탕과 프림 성분이 많은 인스턴트 커피 대신 체지방 관리에 효과적인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샐러드, 나물무침 등 채소류 위주로 반찬을 구성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침은 사내 식당에서 꼭 챙겨먹고, 점심은 사내 카페에서 제공하는 샐러드를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체중을 10%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고질적인 속 쓰림 증상도 없어져 20대로 돌아간 몸에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만큼, 이제는 업무에 더욱 매진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로 시작하는 ‘제 2의 삶’

황현지 사우(27세,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넌 참 통통하다라는 말을 들은 지도 어느덧 20년. 수많은 다이어트 시도와 실패를 반복했지만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은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또 한 번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식, 밀가루, 탄산음료를 끊고, 매일 1.5L 이상의 물을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를 타면 목적지보다 2개 정류장 앞에서 내려 걸어가는 등 일상의 활동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초반엔 눈에 띄게 살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정체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식용이던 운동기구를 하루에 시간씩 사용하고, 근력 운동도 10분씩 꾸준히 하니 조금씩 기대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이어트가 힘들지만 언젠간 멋진 몸매를 갖게 될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이어트를 꿈꾸는 사우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여름철 건강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질푸른 녹음과 시원한 매미소리는 반갑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불볕더위로 인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타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건강 상식'을 함께 알아보자.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는 무조건 높은 게 좋다?

자외선은 파장의 크기에 따라 자외선A(UVA)와 자외선B(UVB)로 나뉜다. 자외선 A는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되는 자외선으로 멜라닌을 활성화해 기미, 주근깨 등 잡티를 생성하고 콜라겐을 파괴해 주름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파장이 큰 자외선B는 피부 표피층에 흡수되는 자외선으로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AB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실내에 있을 때는 SPF 지수가 15~20, PA 지수가 '+' 등급 이상이면 충분하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질 경우 자극 피부염, 접촉 피부염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외선A는 유리창도 투과하기 때문에 종일 실내에 있거나 구름이 낀 흐린 날씨 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한편,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SPF 지수가 30~50, PA 지수가 '+' 등급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자주 땀이 나거나 해수욕 등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씻겨나갈 경우가 많으므로,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바르는 경우, 동전만 한 크기로 짜서 여러 번 얇게 펴 발라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게 하고, 외출 15~30분 전에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땀띠가 난 뒤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면
오히려 부작용



살이 접하는 부분은 목욕 후 물기를 제대로 닦기 힘든데다 땀이 쉽게 차서 땀띠가 자주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위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면 마찰을 줄여 땀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땀띠가 생긴 경우에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우더가 땀과 뒤섞여 땀구멍을 막아 땀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에 지친 모발과 두피



강한 자외선에 두피가 오래 노출되면 땀샘 활동이 활발해져 노폐물이 많이 분비된다. 이는 모낭과 모근을 자극해 가려움증이나 비듬을 발생시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 모발 역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수분을 빼앗기거나 건조해져 끊어지거나 탈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에서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발과 두피에 질환이 있는 경우, 땀과 세균에 의해 오히려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선택한다.**

또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모발 두피 전용의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면 좀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 음식물 관리 중요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독성 화학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혹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 구토, 오심, 복통, 설사 등이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고온 환경에는 음식물도 쉽게 상하여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을 끓여 먹고, 음식물도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한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냉동식품도 충분히 조리해야 한다.** 특히 부패한 음식 안에 생성된 독소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오래되어 상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편, **외출 후 또는 식사 전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강렬한 햇볕 아래 메스꺼움, 일사병엔 그늘로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창백하며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일사병 환자가 생기면 일단 열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그늘지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차가운 물에 적신 모포를 덮어주거나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 부위 등 신체를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환자가 땀을 많이 흘려 체내에 염분이 고갈됐을 확률이 높기에, 소금물을 먹임으로써 염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작업 중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을 느끼기 전 20~30분마다 적절한 염분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보다는 각종 전해질이 함유된 이온음료가 도움이 된다.

간단한 동작, 운동 효과 만점!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허리나 어깨가 저리는 등, 근육에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몸의 중심이 틀어져 척추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져 극심한 통증이 야기될 수 있다. 오늘부터 오전과 오후, 틈틈이 짧은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고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 별도의 운동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01

목 굽히고 당기기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깎지 끼고 정수리 아래 뒤통수에 댄다. 목 뒷덜미의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도록 양손을 아래쪽으로 눌러 턱을 가슴에 닿게 한다. 그 다음 오른손을 머리 위로 가로질러 왼쪽 뒤통수 귀 뒤편에 건다. 오른손에 힘을 주어 머리를 약 45도 각도로 당긴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겨준다.



02

어깨를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기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1~2회 정도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신다. 숨 고르기를 마친 뒤 숨을 충분히 들이쉬신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툭 떨어뜨린다. 이 두 동작을 5~10회 정도 반복한다.



03

손바닥 몸 쪽으로 당기기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다.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부드럽게 당긴다. 팔꿈치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한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05

몸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양 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앉는다. 등이 둥근 모양이 되도록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인다. 아랫배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구부려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06

다리 교차하여 몸 굽히기

앉은 자세에서 왼쪽 다리의 발목이 오른쪽 다리 무릎에 위치하게 다리를 올린다.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허리를 편 상태로 몸을 앞으로 굽힌다. 왼쪽 엉덩이에서 근육이 펴지는 것이 느껴져야 하며,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다.



07

다리 들어올리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등받이에서 몸을 떼다. 무릎을 굽힌 채로 허벅지가 45도가 되도록 다리를 든다. 복근에 실리는 긴장감을 느끼며 버틴다.



다양한 스트레칭법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보세요!



04

옆구리 굽히기

배에 힘을 주고 앉는다. 오른손은 의자의 왼쪽 끝을 잡고 왼손은 위로 쭉 뻗어 귀 옆에 붙인다. 그 상태에서 옆구리를 굽혀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인다. 5~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좌우 각각 10회씩 반복한다.



“명품 배관, 우리 손 거쳐 완성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수리선에서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하며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이 선종은 현대미포조선이 중형선박 부문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선주사들 사이에서 브랜드명처럼 ‘미포 탱커’라 불리는 만큼 고품질을 자랑한다.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은 특성상 배관 공정이 중요하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생명에 큰 지장을 받듯이, 배관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화물 이송이나 하역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사보 편집실은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명품 PC선 건조에 몰두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의장1부 선장1팀을 만나봤다.

오차 허용 않는 완벽한 시공

팀장인 장순식 기원을 비롯한 선장1팀 37명은 선박의 엔진룸과 선실을 제외한 대부분 구역의 배관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선수(船首)부터 선미(船尾)까지 배 전체를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선장1팀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품질'.

이들은 어느 공정보다도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배관 조립에 나선다. 특히, PC선에 탑재되는 유압펌프는 단 2mm 이내에 설치돼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정확한 작업 수칙 준수라는 기본에 충실한 것은 물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수시로 조립할 배관들을 점검하며 품질 문제를 방지한다.

장순식 기원은 “배관 조립 전에 안쪽부터 꼼꼼히 살펴본다”며 “자그마한 먼지라도 접속 부위의 틈을 유발해 누유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장1팀의 숨씨는 감독관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13년 모나코 스콜피오(SCORPIO)사의 5만톤급 PC선을 건조할 당시 유독 간간하기로 소문난 감독관이 직접 배관검사에 나섰을 때도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렸을 정도다.

당시 이 감독관은 배관 라인의 수평과 변형

을 검사하기 위해 12미터 길이의 배관에 체결된 U-볼트를 모두 풀 것을 지시했고, 라인 곳곳을 꼼꼼히 살펴며 품질을 검사했는데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넓은 작업범위에도 안전관리 으뜸

이들은 PC선뿐 아니라 해양작업지원선(PSV), 주스운반선, 냉동컨테이너선 등의 특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명품 선박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힘든 과정이다.

특수선일수록 각종 배관 장치가 많아져, 작업이 복잡하다.

아울러 유압식 앵커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은 전자식보다 더욱 까다로운데, 앵커 자체도 무겁지만 선수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커다란 유압 장치와 배관 라인을 잇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이 힘든 작업 환경에도 선장1팀은 현재의 팀 형태로 개편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약 2천500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았다.

팀원들은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아무리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하는 기본에 충실한 자세가 오랜 안전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윤승환 사우(40세)는 “펌프 배관을 설치할



때는 약 20미터 높이에서 고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담당구역의 족장설치가 미비하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할 정도로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끈끈한 팀워크

조선업 불황으로 회사의 전박적인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선장1팀의 일터에는 웃음과 활력이 넘쳐흐른다.

선장1팀은 막내 김경복 사우(23세)부터 최고령 박동국 사우(60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기적인 단합행사를 통해 돈독한 정을 쌓고, 축구 소모임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이다.

독특한 취미나 특기를 가진 사우들도 유난히 많다. 항공기 정비기사 자격증을 가진 유도관 사우(40세), 일본 후지산을 등반한 이승호 사우(47세)를 비롯해 김명철 사우(47세), 정호진(43세) 사우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암벽등반 마니아다.

이광수(42세), 박용현(41세), 이만호(41세), 김세일(43세) 사우 등은 MTB(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장1팀 팀원들은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용접기능장 취득자만 6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모인 선장1팀은 미포인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선장1팀은
꼼꼼한 시공으로
완벽한 배관 품질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타협없는 안전 철학으로
무재해 작업장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소음과 진동 완벽 차단!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다'

옛 그리스의 서정시에서 '배'는 종종 국가, '폭풍'은 내전, '항구'는 평화를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됐다.

이 비유를 조금 확장해 보면, 국민인 선원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선실이다.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는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소음과 진동 없는 미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선실의 품격을 높이는 산파(産婆)다.



서태섭 부장

부서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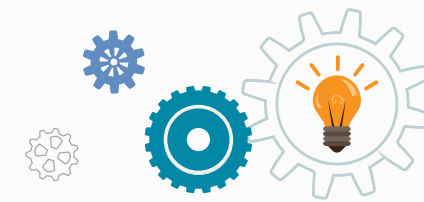
저는 사람들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지향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선실설계부 6개의 과별 조직 외에 '품질', '기술', '행복'이라는 3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원의 참여와 투표로 'CABIN+HEALING'이라는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공유함으로써 부서의 정체성 강화는 물론, 비전 성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소개

선실설계부는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각 핵심 구역에 물과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선실 설비'와 신체 각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을 붙여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선실 목의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미래의 부가가치가 높은 '로팩스', '페리', '여객선' 등의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동양미를 갖춘 인테리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선실이란?



선실은 선원 혹은 여객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선박 운항을 위한 모든 제어 장치들이 집결되는 장소입니다. 캐빈구역, 식당 및 조리구역, 냉동창고 구역, 세탁구역, 병원 등과 함께 선박을 운항 조정하는 브릿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선상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을 위해 체육관, 도서관 등 레크레이션 구역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배려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주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자재와 디자인이 요구되며, 선실의 방화(防火) 및 안전 시설은 각 선급이나 관련 정부 관청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부서 자랑거리

선실설계부는 직원들의 컨디션을 늘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과 품질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안마의자와 음악이 갖춰진 '힐링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룹사 모든 임직원에게 무료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든 피곤하실 때 현대중공업 본관 10층에 위치한 힐링룸을 찾아주세요, 피로회복제가 따로 필요 없답니다!



| 품질·안전 아카데미 | 개정도 발행시 일일 현장 스태프 참여



제품 경쟁력은 품질 확보로부터 시작되며, 안전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낙하산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 기능시험을 수행하게 했더니 불량률 '0%'가 됐다는 리포트에서 착안하여, 개정도 발행자가 일일 현장 스태프로 참여하는 '품질 완성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설계 지침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술·윤리 아카데미 | 기량 향상 교육 오작률 '0%' 도전



선박의 수주 경쟁력은 설계로부터 시작되며, 설계에서 투자한 한 시간은 현장 작업의 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각오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실설계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오작률 '0%'에 도전하고 있으며 기량 향상 교육을 통해 각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보안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를 소지하여 매뉴얼로 활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행복·문화 아카데미 | 부서원 삶의 질·행복지수 ↑



우리는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일에는 축하 쿠폰을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소소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줍니다. 또한 결혼기념일과 배우자 생일에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호선을 인도한 담당자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축하행사를 열어주는

등 부서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 LNG재기화로 독보적 기술력 선도

현대중공업 화공시스템연구실
남기일 수석 연구원

지난 5월 23일 현대중공업은 독자 기술을 개발해 수주 경쟁력을 높인 사우들에게 역대 최고액의 우수성과 즉시포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주인공은 ‘해수-글리콜(Glycol) 간접가열 LNG재기화시스

템을 개발한 남기일 수석연구원(49세, 화공시스템연구실), 이태영 선임연구원(39세, 화공시스템연구실), 양승욱 대리(35세, 박용기계기술부), 박재현 과장(33세, 기본설계2부), 김진욱 과장(35세, 대형엔진조립3부), 고국 부장(46세, 조선기자재구매부) 등 6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를 기체로 바꿀 때 응고점을 낮춘 글리콜 혼합액을 열매개체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해수나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던 방식에 비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선박 한 척당 약 650만달러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대중공업이 향후 LNG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을 주도한 남기일 수석연구원은 “기술 개발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무엇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함께 고생한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글리콜을 이용한 재기화 시스템은 지난 2007년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글리콜-시스템 재기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마침내 찾아낸 최적의 시스템이다.

오래 전부터 프로판 가스의 폭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이들은, ‘글리콜-시스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프로판 가스를 이용한 재기화 방식이 이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해냈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남기일 수석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기까지 생각보다 길고 끈질긴 시간이 필요했다”며, “처음대 이정동 교수가 축적의 값이란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개발에는 분명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NG선 분야에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스키드로더 운전자 비상탈출장치 고안, 돌발 상황에도 안전 확보!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김응선 차장, 박종진 기원

현대삼호중공업은 4월 26일 우수성과 즉시포상을 실시해, 기술 개발에 앞장선 사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최고액의 포상은 안전기술 분야의 ‘스키드로더(Skid Loader) 운전자 비상 탈출장치’를 고안해낸 공무부 김응선 차장(49세)과 박종진 기원(55세)에게 돌아갔다. ‘스키드로더(Skid Loader)’는 집게나 버킷(Bucket)을 이용해 블록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도장 공장 그리트를 수거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소형 중장비다. 그러나 엔진룸 화재 등 돌발 상황에 의해 전원이 꺼질 경우 출입문이 폐쇄돼 운전자의 탈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붐의 정지 위치가 지면에서 최대 160cm에 이르기 때문에 탈출 시 버킷 안의 물건이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이에 김응선 차장과 박종진 기원은 한 달 간의 연구 끝에 ‘스키드로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 탈출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를 활용하면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직접 밸브를 조작해 붐(Boom) 내 유압을 제거할 수 있고, 붐이 자력으로 하강해 보다 안전한 탈출이 가능해진다.

김응선 차장과 박종진 기원은 “밸브의 위치 선정부터 호스 연결까지,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며 “이번 우수성과 포상은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함께한 현장 사우들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차를 이용한 ‘러그 안전제거 장치’를 개발하며 현장 안전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박종진 기원은 “우리가 개발한 장치가 현장 작업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우들과 함께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 운전자가 직접 밸브를 조작해 붐(Boom) 내 유압을 제거 가능



왼쪽에서부터 박종진 기원, 김응선 차장

‘세계적 메이커 도약’, 당당한 출사표!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현대건설기계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글로벌 톱 5 건설기계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17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개막식 현장에서 현대건설기계는 회사의 비전과 성장 전략 등을 소개하는 ‘독립 브랜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 손동연 한국건설기계산업 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기영 대표는 “지난 1985년부터 30년 넘게 건설장비사업을 펼쳐 오며 ‘현대(HYUNDAI)’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려 왔다”며 현대건설기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다.

이어서 그는 2023년까지 품질 향상,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매출 7조원, 글로벌 5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23’을 선언하며 “장비의 성능과 품질, 서비스까지 톱 티어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건설기계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전시회에서 현대건설기계는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상품인 ‘명품(名品)장비’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고품질, 고성능을 요구하는 국내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탄생한 신제품으로, 굴삭기 선회력을 20% 높이는 등 운전 조작성과 편의성, 내구성 등 품질 전반을 크게 개선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명품장비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연평균 13%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니 굴삭기의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원거리에서 엔진과 공조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하이메이트(Hi-Mate) 2.0’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CT)을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기영 대표는 “정주영 창업자는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며, “현대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현대건설기계의 DNA”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함께 손 잡고 걸으며 새출발, 새다짐

현대일렉트릭이 직원들과 함께 맘을 흘릴 수 있는 건강한 행사를 개최하며 힘찬 새출발을 시작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임직원 및 가족 400여명은 지난 5월 21일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된 I LOVE U 워킹 페스티벌에 참가해 달동 문화공원에서 울산대공원까지 3km구간을 함께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임직원 전원이 회사의 이름과 핵심가치가 새겨진 유니폼을 맞춰 입고 울산 시내를 걸으며, 울산시민들에게 현대일렉트릭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어 6월 3일에는 울산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울산 가족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태화강대공원과 심리대숲 일원에서 5km와 10k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현대일렉트릭 임직원과 가족들 300여명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함께 맘을 흘리며 화합과 체력을 다졌다.

아내와 함께 대회에 참가한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박춘하 기원(55세)은 “회사에서 늘 붙어 있는 동료들이지만 이렇게 야외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모처럼만”이라며, “숨이 차오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던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법인 출범 후 다양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회사의 발전이라는 임직원 모두의 바람을 담은 걸음들이 모여,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로 진일보(進一步)해 나가길 기대한다.

▼ 울산 가족사랑 마라톤 대회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 디지털 기업으로 진화 중!

현대중공업그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제조업을 탈피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구축 '첫 발'

'스마트 팩토리'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 본질은 생산자원 간의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조성이 완료되면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품 개발 기간, 납품 기간 등이 단축되고, 수준 높은 안전 및 에너지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즉, 작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ICT기획팀과 설비기획부가 주축이 돼 최근 2야드 중조립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구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설비 상태와 공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용접 조건 등을 도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과 ICT의 만남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사업은 단연 '스마트십' 개발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능력을 ICT와 융합해 전 세계 조선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각오다.

스마트십 관련 기술 개발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다. 최근 두 회사는 친환경경제 운항과, 안전 운항이 가능한 지능화된 선박 건조를 위해 스마트십 통합 솔루션인 'HiSS(Hyundai

Integrated Smart Solution)'의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탑재해 기능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스마트십 솔루션 1.0인 '아코니스(ACONIS)/DS'를 개발해 AP몰리의 7천400TEU급 컨테이너선에 처음으로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300여척의 선박에 스마트십 기술을 탑재하며 관련 기술을 꾸준히 진화시켜 왔다.

향후에는 차세대 스마트십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선박 건조, 엔진 생산, 전장품과 관련된 설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선박의 유지보수 및 운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고객에게 제시해 주는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가 2019년부터 선박 운항 관리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도입하기로 함



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차기 버전 스마트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 적극 육성

현대일렉트릭은 에너지 설비에 ICT를 접목, 사용자의 편리한 관리·조작·유지보수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센서로부터 에너지 설비의 정보를 받아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 사용자에게 제시해 주는 '산업용 플랫폼'에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말 독자 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올해 결실을 맺어 '인티그릭'이라는 브랜드 출시로 이어졌다.

'인티그릭'은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전력기기 자산관리 솔루션(AMS, Asset Management Solution) 등으로 세분화된다.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산업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8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기술 개발 박차

현대건설기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하이메이트(Hi-Mate)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추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하이메이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동 정보와 연료 사용량, 연비 등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비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대건설기계는 오는 8월까지 소모품 교체 시기, 연료 부족 및 냉각수 정상치 초과 시기의 경우 '푸시(Push) 알람'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고, 한국어와 영어 외에 4개 언어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ICT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요리의 기본 '달걀말이'

별다른 준비 없이 집에서 해 먹기에 가장 편한 요리를 검색하던 중, 달걀 요리만큼 쉬운 음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달걀프라이는 아들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번거롭지만 '달걀말이'를 첫 번째 요리로 정했습니다.

달걀말이는 끊어지지 않고 돌돌 마는 것이 중요한데, 테두리 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개와 포크를 이용해 말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말이는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 채소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일차

“애들아~ 아빠가 맛있는 요리해줄게”

Cooking Time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4일차에 접어들자 어느 순간 저는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 대신 '오늘은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진다 하니 가사노동의 고충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매콤 달콤한 맛이 나오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빠가 직접 먹여줘서 더 맛있다고 말해준 우리 막내, 고맙다!



4일차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오늘은 당차게 김밥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시는 어머님들을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밥은 야채 손질은 물론 달걀, 햄, 맛살, 단무지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만들기는 어려운 음식! 어릴 때 소풍 갈 때면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주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5일차



김기철 사우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한국에 '요리하는 남자' 열풍이 불고 있다.

'요리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는 이미지가 점차 굳어지면서 가정에서 요리하는 남성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리초보라도 만들 수 있는 간단 레시피의 발달로 예전보다 요리가 한층 쉬워졌다.

이에 발맞춰 김기철 사우(41세,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도 리모컨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1등 남편이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2일차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스트'

세프들에게 요리는 연구의 대상이라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저와 같은 초보들에게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요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냉장고 옆에 있는 식빵이 눈에 띄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달걀에 소금, 설탕, 우유를 넣고 잘 섞어 달걀물을 만들고, 식빵을 달걀물에 적신 후 프라이팬에 올려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달걀물에 오래 적실수록 토스트는 더 촉촉하게 부드러워니 개인 취향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3일차

압력밥솥 없이 '밥' 짓기

자고로 남자라면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 습성이 있죠. 그래서 전기밥솥도 압력밥솥도 아닌 냄비에 밥을 지어봤습니다.

이십 대 초반에 친구들과 놀러 가서 냄비에 밥을 지은 경험을 떠올리며 쌀을 씻고, 물은 압력밥솥에 넣을 때보다 살짝 더 넣었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어느 정도 밥이 익었다 싶으면 밥을 섞고, 약한 불로 다시 끓이다가 밥 냄새가 나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였습니다. 밥이 설익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전기밥솥에 한 것만큼 맛있는 밥이 나왔습니다. 전기밥솥이 고장 나고 압력밥솥이 없을 땐 배달음식 대신 저처럼 '냄비밥'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6일차

한국인 밥상의 기본, '김치찌개'

오늘은 김치찌개에 도전한다고 말하니, “배달시켜 먹어야겠네”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이 알미워 반드시 김치찌개 만들기에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김치, 각종 야채 순으로 넣어 잘 볶아준 후 물과 김치국물을 넣으니 김치찌개의 모양새가 열차 나왔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을 보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김치찌개의 생명은 '김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다니... 장모님이 보내주신 김치가 제 찌개를 살렸습니다!



7일차

아빠 요리의 하이라이트, '백숙'

김밥에 이어 김치찌개까지 성공한 뒤, 요리에 자신감이 붙어 마지막으로 백숙에 도전했습니다.

삼계탕의 핵심은 '잡내 제거'. 저는 끓는 물에 한번 삶고 찬물에 헹구고 다시 한번 삶아 잡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추, 대파, 양파, 통마늘 등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였습니다.

뽀얀 살결의 백숙 완성! 끓는 중간에 뽕뽕 떠있는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면, 한결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한 요리인데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진작에 한번 해줄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사우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가족같이 진한 情 직장생활에 행복 ‘화수분’

직장에서는 ‘공(公)’과 ‘사(私)’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가족보다도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료와 사무적인 관계만을 이어나간다면 회사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할까? 여기 회사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후배들을 아끼는 김경석 사우(39세, 현대삼호중공업 원가회계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김호택 사우(35세,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가 사보 편집실로 사연을 전해왔다.

감사한 마음은 ‘신문’을 타고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사보 편집실로 찾아온 김호택 사우의 첫 마디였다.

쑥스러워 하는 후배들을 대표해 용기냈다는 김호택 사우. 오랜 시간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는 원가회계부의 김경석 사우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회사 생활에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며, 업무에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경석 사우는 후배들의 특별한 날도 잊지 않고 축하해줬다고 한다. “김경석 선배님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김호택 사우가 사보 편집실로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신문이다. 언뜻 봐도 오래돼 보이는 이 신문은 2008년 김호택 사우의 회사 첫 입사 날과 2015년 그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에 발행된 것이다. 당시, 김호택 사우는 ‘신문 선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그것도 당일치기 아닌 1년 뒤에 전해 주는 김경석 사우의 행동에 어라둥절하기도 했다.

“너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싶어 고민하다 네가 입사한 날 ‘신문’을 선물한다. 너의 기억속에 없는 세상을 보며 그 날이 좀 더 너에게 특별해지기를 바란다.” 김호택 사우는 “이번 기회로 무심하게 넘겨버린 자신의 입사일까지 기억해준 선배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항상 후배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배님



덕에 행복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표현해볼게요.”

‘좋은 인연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되다’

후배들을 바라보는 김경석 사우의 모습에선 동료가 아닌 친동생들을 보는 듯한 따스함이 물씬 풍겨진다.

후배들에게 언제부터 ‘신문 선물’을 전해줬냐는 물음에, 김경석 사우는 처음엔 책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대답한다. 그러다 문득, 사우들의 경조사 및 입사

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해 그 날의 세상을 선물하게 됐다고, 그렇게 시작한 ‘신문 선물’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전해줘야 할 사우들이 많으며 웃음을 터트린다. 김경석 사우는 후배 사랑뿐만 아니라 애사심도 상당하다. 뛰어난 그림솜씨를 자랑하는 김경석 사우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HS-POPS, 보안 소식지, 안전 소식지, 삼호뉴스 등 부타이 오는 곳마다 망설이지 않고

그림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넘쳐나는 부타이 귀찮을 법도 한데 싫은 내색을 하는 법이 없다. 김호택 사우는 “선배님이 보내주신 깊은 사랑과 관심이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지내자”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경석 사우 역시 “내 주위에는 좋은 인연들이 많다”며 “이를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고 연신 호탕하게 웃었다. 좋은 인연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된다는 말

이 있다. 김경석 사우처럼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나가면 직장 생활은 물론 삶 자체가 행복해질 것이다. 김호택 사우와 김경석 사우와 같이 서로를 아끼는 깊은 우정이 그롭 곳곳에 퍼져나가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



불굴의 도전, 선박 주방설비 1위 우뚝!

선박용 주방기기 부문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절대 강자로 올라선 삼주이엔지는 육상 주방설비로 사업을 확대하며 조선업 불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집념으로 이룩한 기술 국산화

부산 사하구 다대동 무지개공단에 자리잡은 삼주이엔지(대표 장명주)는 친환경 전기식 주방장비와 냉동·냉장 창고 등 선박 주방설비를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삼주이엔지가 사업을 시작한 1986년 당시에는 독일 핀란드 등 유럽 회사들이 선박용 주방설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선박용 주방설비는 염분에 강하고, 파도로 인한 잦은 충격에도 끄

덕 없어야 하는 등 높은 내구성을 요구하는 탓에 후발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술 확보가 시급했던 삼주이엔지는 독일 '탈만사'와 합작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것이 전부였다. 기본 도면과 기술을 전수받으며 제조 역량을 쌓은 뒤 탈만사와 결별한 삼주이엔지는 이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주원료인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국



삼주이엔지 장명주 대표



내외 주요 선급의 품질인증을 하나씩 받아나갔다. 그렇게 기술은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납품이 문제였다. 국내 회사들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에 삼주이엔지 장명주 대표(63세)는 선주를 공략하기로 했다. 직접 제품 모형과 브로슈어를 들고 고객을 찾아 다니며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외국산 대비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열정적인 노력은 곧이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삼주이엔지는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를 모두 고객으로 가진 최고의 선박용 주방설비 기업이 됐다. 선박용 주방설비를 납품하며 국내 시장의 65% 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육상 주방설비로 사업 다각화

1995년부터는 선박용 주방설비 제작을 통해 쌓아왔던 기술력을 육상 주방설비에 접목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다. 주력 상품은 전자 유도 가열방식(인덕션)의 대용량 밥솥과 볶음솥·국솥·튀김솥 등이다. 주로 대용량 제품을 타깃으로 삼아 학교나 종합병원, 군부대 같은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판로를 넓혀갔다. 최소 100인분에서 최대 500인분에 이르는 거대한 밥솥과 국솥, 레인지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각종 인증 획득과 특허 출원을 통한 해외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삼주이엔지가 개발한 제품은 냄비나 솥에만 열을 가해 조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조리 외에 에너지가 썰 틈이 없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와 비교해 열 전달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삼주이엔지는 사업에 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2011년 장 대표가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게 말이 되냐”고 하자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전설로 통한다. 현재 삼주이엔지의 인덕션 기기는 전국의 학교 50여곳과 100여개 업체에 납품됐다. 이 같은 삼주이엔지의 사업 다각화는 조선업 불경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크루즈 시장으로의 새로운 도전

삼주이엔지 회의실에는 1930년 독일에서 건조된 '유로파'호의 출항식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다. '유로파'호는 세계 최초의 크루즈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루즈선에 꼭 납품을 하고 말겠다”는 장 대표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크루즈 설비는 일반 선박 물품 납품가의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어 꿈의 시장으로 불린다. 이에 삼주이엔지가 또 한 번 새로운 시장으로 힘찬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경남 진주공장을 가동하고, 스테인리스 외에 목재를 절단·가공할 수 있는 최신 설비들을 들여왔다. 또 폴리우레탄 본드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을 시작하고, 디자인에도 적극 투자해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30년간 불철주야 기술 개발에 매달린 결과,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해 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주방 설비 분야의 최강자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박용 주방설비를 넘어, 글로벌 일류 기업을 향한 삼주이엔지의 힘찬 도전을 기대해 본다.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시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 차갑지만 매혹적인 나라

풍부한 자원과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 러시아.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16도 수준으로 서늘해, ‘이열치한’이 가능한 대표적인 피서지로 손꼽히고 있다.

잘 웃지 않는 사람들, 웬지 모르게 무뚝뚝한 말투에 속을 알 수 없는 차가운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그 속에는 끈끈한 정과 의리가 숨어 있어 더 없이 매력적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자.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전경

자원의 땅에서 빛난 우리의 기술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철광석, 금 등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해 개발의 기회가 무궁무진한 땅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해양, 건설장비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여러 회사와 좋은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가즈프롬(Gazprom),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등 러시아 소재 선주사로부터 현재까지 총 82척의

선박을 수주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소브콤플로트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유조선을 수주하며, 친환경고효율 선박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9월 현대중공업과 로즈네프트(Rosneft)사가 협약을 맺고, 상선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도 올 상반기 러시아 극동조

선본부 산하 즈베즈다 조선과 선박 엔지니어링 합작 회사를 설립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사할린 유전에 투입되는 원유·가스 생산 시설 ‘아돕투(Odoptu)’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해양 부문에서도 협력을 다지고 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약 2천만불 규모의 초대형 굴삭기를 수주하며,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도시 전체가 역사와 예술을 품다

호수의 크기만 해도 한국의 1/3 수준인 거대한 나라 러시아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채의 도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여행의 출발점으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추천한다.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크렘린 궁전’과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붉은 광장’은 놓쳐서는 안 될 명소다.

도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운하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유럽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러시아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피의 사원’ 내부는 유명 화가들이 도안한 모자이크화로 가득 메워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저렴한 물가와 아름다운 야경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독수리 전망대’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예술이 꽃피는 아르바트 거리를 걸으며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을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세번째 수도였던 카잔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다. 백색의 요새 ‘크레믈’이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카잔 1천 주년에 맞춰 세상에 공개된 이슬람 사원 ‘쿨 샤리프’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슈움비케 탑’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운하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붉은 광장 야경

러시아에서 보내온 이야기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절묘하게 융합된 나라,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는 눈을 땔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현대건설기계 모스크바 지사에서 근무하는 장정우 과장(40세)을 통해 러시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독특하다고 느낀 러시아만의 문화가 있나요?

러시아에는 우리나라의 정(情)과 비슷한 문화가 있어,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웬만해선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딜러사의 영업사원은 고객사 경영진에게 3년이나 미팅을 요청했으나 줄곧 거절 당했는데, 경영진의 지인을 통해 사우나, 사냥, 낚시를 함께 하고 나서, 장비 납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사적으로 나는 정이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은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VIP 투어’와 같은 고객 초청 행사인데요.
 실제로 고객 중에는 지금까지 경쟁사 제품만 사용해 왔지만, 올해 진행된 VIP 투어에 참석한 이후 현대건설기계와 계약한 고객도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러시아에는 여전히 신분과 서열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에 상관 없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러시아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해 식사나 회의 등에 참석할 대상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운전 기사와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함께 회의를 한 직원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식사자리에 초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소련 시절, 일당 독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 관료 조직 문화의 잔재라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추천해주세요!

러시아 대표 관광지로는 크렘린 궁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성채, 요새를 뜻하는 말인데요, 각 도시의 중심부에는 대부분 크렘린이 있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 궁이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외에 저는 러시아 곳곳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차대전 승리 박물관, 나폴레옹 전쟁 승리 박물관 등 승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 여러 곳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한국과 연관된 사실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에 위치한 알타이산인데요, ‘알타이’는 현지 언어로 ‘금(金)’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신라의 시조를 이루는 성씨 ‘김(金)’과 연관이 있고, 신라에서 발견된 기마 토우, 사슴뿔 무늬 등이 러시아에서도 역사적인 유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신라의 분류가 중앙아시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제품, 완벽한 시공 ‘현대 자긍심’ 가득했던 날들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와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7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정지함’ 진수식

2007.7

2007년 7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국내 최대인 1천800톤급(214급) 잠수함 ‘정지함(鄭地艦)’의 진수 소식이 소개됐다. 정지함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부터 해군에 인도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 가운데 2번함으로, 고려시대 남해안에서 왜구를 토벌한 정지장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총 9척이 건조되는 214급 잠수함 가운데 1번함인 ‘손원일함’을 비롯해, 2번함 ‘정지함’, 3번함 ‘안중근함’, 5번함 ‘윤봉길함’, 7번함 ‘홍범도함’까지 총 5척을 건조했으며, 9번함도 지난 2014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대미포조선은 신축 기숙사인 ‘미래관’을 건설하기 위해 2007년 7월 현장 설명회와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문현관 기숙사 인근에 지어진 신축 기숙사는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8년 10월말 완공됐다.



▲ 현대미포조선 ‘미래관’ 기숙사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중앙 냉난방 설비가 갖춰진 262개 호실과 체력단련실, 독서실, 시청각실, 당구장, 탁구장 등 다양한 공용시설도 함께 완비됐다.

이달 현대삼호중공업은 건조한 선박 2종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선정된 선박은 8천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8만DWT 이상의 원유운반선으로,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11%와 10.3%를 차지하는 등 차별화된 품질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현대삼호중공업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다년간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매년 2척 이상의 ‘올해의 우수선박’ 선정 및 ‘세계일류상품’을 배출하고 있다.



▲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초대형 원유운반선

1997년 7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해양사업본부가 8천5백톤의 철골을 제작해, 재시공된 성수대교 소식이 실렸다. 이 공사는 1994년 붕괴된 성수대교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붕괴 이후, 2년 8개월만에 재개통된 성수대교는 철강재의 강도를 크게 높여,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달 사보에는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본부가 진행한 현대정유(現 현대오일뱅크) 울산자유소 시설 공사의 현장 방문기도 실렸다. 총 1만7천여평의 부지에 약 65만 배럴의 휘발유 등을 저장할 수 있는 10기의 자유탱크 건설을 통해 산업의 젖줄과 같은 유류의 보급을 가능케 했다는 사우들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필리핀 아보이티즈 쥘슨(Aboitiz-Jebesen Bulk Transport Corp.)사와 건화물선을 시멘트 운반선으로 개조하는 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이 9번째로 시공하게 된 시멘트 운반선 개조 공사였다. 현대미포조선은 대만 타호(Ta-Ho)사와 6척, 미국 불리카 쉬핑사의 2척을 성공적으로 개조해 인도한 바 있다.

1987년 7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현대중공업이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87년도 생산성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이 상은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원가 절감, 노사 협력 등 11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수여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기술 혁신 및 기능 인력 양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현대미포조선은 제 4도크 30미터와 제 1안벽 100미터의 연장 축조공사를 완공했다. 4개월만에 완공된 이 공사로 4도크의 생산 능력은 25만DWT에서 27만DWT로 확대됐다.

1977년 7월 현대중공업 사보 1면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소식이 실렸다. 정주영 창업자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 현대그룹의 모체인 현대건설의 자산 1천억원 가운데 절반인 5백억원을 출연해 이 재단을 설립했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주영 창업자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7.7



▲ 현대중공업에서 철골을 제작해 1997년 재개통된 성수대교

1987.7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7월호

▲ 연장 축조된 현대미포조선 제 4도크

1977.7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7월호

시원한 물살 가르며, 바다 위를 날다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앞뒤 젖 거 없이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 시절의 바다가 그림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자. 열정대로 살면 그게 바로 '올로(You Only Live Once)'가 된다.

“초보 서퍼도 걱정 없어요”

현대중공업 서핑클럽(HHISC)은 지난해 4월 결성된 신생 동호회로 현재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준 사우(36세, 현대중공업 의장2부)는 평소 서핑을 취미로 삼아 가까운 지인들과 배우고 즐기다가 회사 내에서 여럿이 함께 하면 그 즐거움과 의미가 더 커지리란 생각에 사내 동호회를 만들고 회원 모집공고를 냈다. 그렇게 20여명이 모여 1기가 시작됐다.

주로 입회하는 신입회원들은 서핑이 처음인 초보 서퍼여서, 동호회와 연계된 서핑전문점인 진하서핑스쿨에서 5회 정도 강습과 안전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서핑은 혼자 터득하긴 어려움이 따르고, 바다라는 위험요소가 함께 하는 운동인지라 강습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강습 시 장비는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자신에게 맞는 보드와 슈트를 구매해서 쓴다.

강습은 모래 위에서 시작한다. 보드에 누워 손으로 젓기 자세를 배우고, 일어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익힌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5회 정도 강습을 받고 나면 바다로 나가 어느 정도 파도를 탈 수 있다고 한다.

초보의 경우는 파도가 잔잔한 여름에 시작하여 가을의 적당한 파도를 거쳐 겨울의 큰 파도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한 방법이다.

잊지 못할 추억 함께

현대중공업 서핑클럽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회원이 있지

만 다들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각별한 친목을 자랑한다.

주중에는 식사와 차를 함께 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진하, 나사리, 송정, 포항 바다에서 함께 서핑을 즐긴다.

파도가 없을 때는 서핑과 동작이 비슷한 스케이트보드, 카버보드를 타며 감을 익히는 등 매주 평균 10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매해 두 차례씩 서핑트립(trip)과 체육대회를 열어 회원 간의 화목을 다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초에 열렸던 체육대회에서는 서핑슈트를 착용하고 모래밭에서 2인3각 달리기, 줄다리기, 패들릴레이 등 다양한 경기를 함께 하며 재미를 더했다고 한다.

올해 1월 1일에는 서핑보드 위에서 떠오르는 첫 해를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손발이 마비될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평생 가장 설레었던 해맞이였다고 입을 모은다.

서핑의 매력 속으로 '퐁당'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안유진 사우(28세, 현대외국인학교)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보드 하나에 의지한 채 앞드려, 시원한 바다 냄새와 햇살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대단한 힐링이 된다”며, “처음으로 파도 위에 섰던 3초의 짧은 순간이 너무 짜릿해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올 3월에 가입한 동호회의 막내 이현준 사우(26세, 현대중공업 의장2부)도 “사내 동호회 특유의 소속감과 친밀감이 있어 더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며 “바다와 하나 된 채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서핑의 재미에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전한다.

현중 서핑클럽은 올해 부산, 제주, 양양 등에서 열리는 국내 서핑대회에 단체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신입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초급부에 나가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서핑클럽은 올 하반기에 4기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파도를 탈 수 있는 가까운 바다가 바로 지척에 있는 만큼, 많은 사우들이 서핑의 매력에 빠져보기를 바란다. 수시 모집으로도 가입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우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린다. 현대중공업 서핑클럽의 문은 사우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는 '서핑'의 재미, 블로그 'hi,hhi'에서 만나 보세요!



현대중공업 서핑클럽(HHISC)
(Hyundai Heavy Industries Surfing Club)
문의 안유진 총무(010-6891-8029),
장동선 간사(010-7272-7796)

서핑의 기본 동작

서핑은 파도의 속도에 맞추어 가다 파도의 경사면이 생겼을 때 서핑보드 위에 일어서 경사면을 미끄러져 나가는 스포츠다.

서핑의 기본 동작에는 '패들', '푸쉬', '테이크오프' 3가지가 있다.

먼저 파도의 속도에 맞춰 해변쪽으로 손을 저어 나가는 것을 '패들'이라고 한다.

패들로 속도를 맞추다 파도의 경사면에 닿았을 때 손바닥으로 보드 앞쪽을 누르는 '푸쉬' 자세를 취하면 경사면을 따라 보드가 미끄러져 내려간다.

보드에 속도가 붙었을 때 보드 위에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동작을 하고, 파도를 탄다.



중학생 꿈나무들! 조선 분야 진로 체험하고, 꿈을 찾다

햇벌이 따가운 토요일 오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울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5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격주로 진행되는 토요일로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다.

조선, 전기, 기계, 도장, 용접, 건장, 절단 7개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이미 23개 중학교 960명의 학생들이 캠프 참가를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강의실에 가까이 가자 강사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강의는 용접, 절단, 기계, 전기다.

“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하는 강사의 질문에 다양한 답이 쏟아진다. “배는 여러 개의 철판을 이어붙여 만들죠, 절단은 배를 만들기 위해 철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기술이에요, 가스 공급호스와 가스 절단기를 이용해 불꽃을 만들고, 이 불꽃으로 철판을 잘라요, 이따가 체험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강승일 교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딱딱한 내용에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한다.

이윽고 한 시간의 이론이 끝나고 실습실로 자리를 옮긴다. 실습실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많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가죽 장갑, 가죽팔 덮개, 가죽 앞치마까지 모두 착용을 마친 뒤에야 강사들의 절단 시범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철이 빨갛게 달궈지면서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연신 신기해 한다.

한철권 학생(범서중 1학년)은 “불꽃을 만들어 철을 날려버린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오늘 캠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만큼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진로를 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기계’ 강의실에서도 현장의 기계 조립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기술교육원 박영석 강사는 “수업 진행이 지연될 만큼 기계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많았다”며 활기찬 수업 분위기에 뿌듯해 했다.



꿈을 찾아가는, ‘체험의 장’

모든 실습이 끝나고 학생들은 이날 배웠던 내용을 되새기며 회사 견학을 시작했다.

김관우 학생(다운중 1학년)은 “커다란 배는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퍼즐의 완성품

같다”며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른 학생들도 건조 중인 선박, 바쁘게 움직이는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등의 장비를 보고 매우 신기해 한다.

함순자 진로전담교사(범서중)는 “접하기 어려운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며 “토요일로캠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술교육원에서 절단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원현우 강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며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체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봐 해봤어?”

우리 학생들은 벌써 경험을 해 보았으니 반은 성공한 게 아닐까. 소중한 꿈을 가꿔 활짝 꽃 피울 아이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

전시 구성

- 1부-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 2부-영원한 삶과 미라
- 3부-영원한 삶을 위한 꺼묻거리
- 4부-부와 명예의 과시, 장례 문화
- 5부-신성한 동물들
- 6부-영혼이 깃든 동물 미라

전시 기간 ~ 8월 27일

관람 시간 오전 9시 ~ 저녁 6시

입 장 료 성인 1만원, 중고생 8천원, 초등학생 5천원, 유아 3천원

문 의 1688-9891

홈페이지 <http://www.egypt2017.com>

울산박물관이 2017년 해외 특별전시로, '이집트 보물전-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를 열고 있다. 미라, 관, 석물 등 고대 이집트 문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박물관의 이집트 유물 229점을 전시하는 것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나 영국 대영박물관의 이집트 유물과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전시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후세계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 영원한 삶을 위한 미라의 제작 과정과 그에 담긴 의미를 알려준다. 또한 신격화된 동물 미라 등에서는 고대 이집트인의 예술성과 창의성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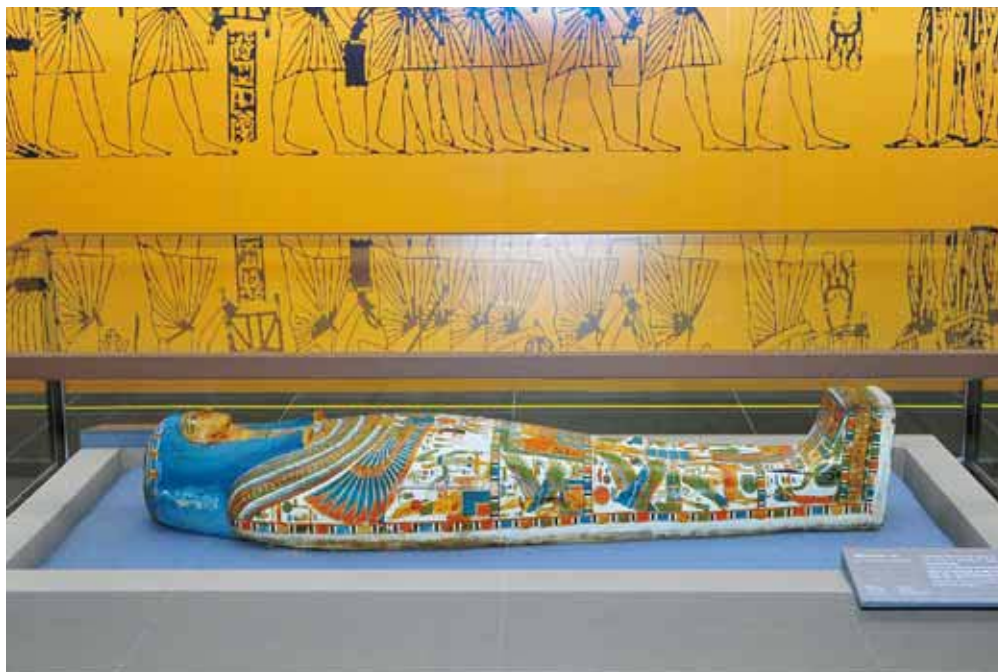
책이나 영화로만 접했던 미라와 그에 관한 유물들을 실제로 보며 아이들과 고대 이집트 문명에 관한 역사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전시장은 그야말로 산교육의 현장이 된다.

이집트 보물전은 관람 시 플래쉬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이집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고, 이집트 전통 게임인 '세네트'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에는 울산박물관 도슨트의 전시 설명이 진행되니, 더욱 알찬 관람을 원한다면 시간에 맞춰 박물관을 방문해 보자.

아직 전시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여름방학을 맞아 색다른 문화 경험을 해보길 권한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에는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뿐만 아니라,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많다. 이에 더하여 지난 5월 24일에는 사적 제 528호로 지정된 역사동 제방이 추가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울산 역사동 제방은 중구 약사천 하류의 넓은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해 흙을 쌓아 만든 수리시설로, 약사천 옆 구릉 사이에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을 막아 물을 가둬 둔 댐이다.

제방의 길이는 155미터, 폭은 짧은 쪽이 25미터, 긴 쪽이 37미터에 달한다. 또한 발굴 당시의 높이는 8미터였으나 이는 세월의 흐름으로 깎여나갔기에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축조 시기는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인 6~7세기로 추정된다고 한다.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제 발견된 제방의 단면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커다란 흙더미 같은 제방 둑이 시야를 꽉 채워, 6~7세기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행운을 누린다.

제방 건축 과정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돼 있는데,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썰 것에 대비해 나뭇잎과 패각류를 깔아 물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점성이 높은 흙을 사용해서 층층을 단단하게 했다고 한다. 자세히 볼수록 신기하고, 선조들의 지혜가 켜켜이 스며 있다.

전시관 내에는 테마전시실과 영상실을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역사동 지역주민들의 당시 삶과 울산의 옛 제방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댐인 김제 벽골제를 비롯한 여러 수리시설이 소개돼 있다.

문득, 1960년대 일본의 기술력이 동원될 뻔 한 소양강 댐 축조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정주영 창업자는 일본에서 설계한 콘크리트 중력댐의 1/3 수준의 비용으로 우리 강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자갈, 모래, 흙을 이용한 사력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우려와 걱정 속에서 1973년 마침내 완공된 소양강 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력식 댐으로,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1년 동안 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제방 유적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고대인의 제방 기술을 엿보고, 정주영 창업자의 소양강 댐 일화도 들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삼국시대 제방 기술을 한눈에 담다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4길 22-28 (혜인학교 뒷편)
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 ~ 저녁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문 의 052-285-3928~9 (무료 입장)



올 여름, 축제의 열기로 후끈!

온 몸을 녹일 것 같은 더위도, 신나는 음악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여름의 뜨거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 보자.

울산 '조선해양축제'

기간 7월 21일(금) ~ 7월 23일(일)
장소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
문의 ☎ 052-267-2748
(홈페이지 <http://www.ulsanshipfestival.com/>)



2017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파도를 넘어 희망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 까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조선 산업과 해양 관광을 결합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축제는 지난해에만 4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울산을 대표하는 조선해양 축제로 자리 잡았다. 7월 21일 '다이나믹 콘서트'를 시작으로, 7월 22일에는 '기발한 배 콘테스트', '해상 불꽃쇼', '클럽파티'가 7월 23일에는 '전국 워터보트 콘테스트', '서핑보트 체험'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축제의 백미(白眉)는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발한 배 콘테스트'다. 참가자 2~5명이 한 팀을 이뤄, 정해진 시간 내에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는 창작선을 만들고, 실제로 배를 띄워 레이싱 경기를 펼친다. 일산해수욕장을 따라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선박이 동동 떠 있는 모습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참가비는 한 팀당 5만원으로,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도시락 등이 제공되며 오는 7월 16일 까지 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순(50팀)으로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웅장한 음악과 조명, 레이저, 불꽃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해상 불꽃쇼', 신나는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지는 '클럽파티' 등 한여름 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올 여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축제 정보를 블로그 'hi,hi'에서 만나보세요!

장흥 '물 축제'는 '2017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인기상을 휩쓸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축제다. 지난해에는 35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등 명실공히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군민회관을 출발해 중앙로를 걸쳐 장흥고 아래까지 이어진다. 인체에 무해한 컬러워터와 파우더를 활용한 교전이 이뤄지고 코스 중간에 흥을 돋우는 음악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축제의 활기를 더해준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무지개다리 주차장을 배경으로 편을 갈라 물총을 쓰고 시원한 물싸움한 판을 벌인다. 소방헬기와 물대포, 소방차, 산불진화차량까지 동원하여 긴장감 넘치는 거대한 수중전을 펼치는 만큼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한편, 시골벽적인 축제의 한가운데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천연 약초 힐링풀을 이용해보자. 편백나무, 녹차, 표고버섯 등 장흥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약초를 활용하는 스파 풀장은 미리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경북 포항 '국제불빛축제'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철강기업 포스코가 지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 불꽃쇼 행사를 실시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규모를 확대해, 산업과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불빛 퍼레이드' 및 '뮤직 불꽃쇼' 등 형산강과 영일만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만발의 불꽃이 그려내는 장관은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황홀함을 선사한다.



기간 7월 26일(수) ~ 7월 30일(일)
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형산강 체육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문의 054-289-7851~3

전남 장흥 '물 축제'

기간 7월 28일(금) ~ 8월 3일(목)
장소 전남 장흥읍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의 ☎ 061-863-7071



경남 사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전어를 맛볼 수 있는 전어축제가 이달 말 삼천포항 팔포매립지에서 열린다. 전어는 집 나간 머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의 진미'이지만, 삼천포항 인근에는 이미 7월 말부터 '여름 전어' 수확이 한창이다. 축제 기간 동안 '골든벨 퀴즈', '시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고소한 전어구이, 전어회무침 등을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회'가 진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자.



기간 7월 26일(수) ~ 7월 30일(일)
장소 경남 사천시 팔포매립지 일원
문의 ☎ 055-832-8568

정리 김하연 현대중공업 ·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천혜의 비경 아래 시원한 물줄기 여름엔 역시 계곡!

내리쬐는 태양빛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 열기를 품은 도시는 습하고 끈적하기까지 하다.
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 산이며 바다로 떠날 휴가철이 머지않았다.
이번 여름은 차가운 물이 울창한 숲의 기암괴석 사이를 흐르는 국내 계곡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 지리산 칠선계곡

지리산 7개의 폭포수와 33개의 크고 작은 소(峽)가 천왕봉에서 용소까지 18km나 이어진 칠선계곡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골이 깊고 험하기로 유명하다.

일곱 선녀와 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선녀탕,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옥녀탕, 선녀들이 노닐었다는 옥빛의 비선담, 계곡을 상징하는 칠선폭포와 대륙폭포, 삼층폭포 등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가 많다.

지난 1997년 태풍 '차리'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고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한 후 올해 처음으로 5·6월과 9·10월 한시적인 사전 예약을 통해 가이드와 함께 탐방이 허용된다.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문의 055-962-5354

예약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 (<http://reservation.knps.or.kr/information/trailinfo.action>)

● 설악산 천불동계곡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은 비선대에서 대청봉 사이에 있는 7km 길이의 계곡이다. 설악 비경 10경 중 하나인 이곳에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비선대에 와서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천 개의 바위가 마치 불상을 늘어놓은 것 같다’하여 이름 붙여진 천불동계곡은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떨어지는 수많은 폭포, 깊은 숲 속에 숨어 있는 맑은 연못 등이 함께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천불동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비선대, 문수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 한라산 탐라계곡

볼 것 많은 제주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라산. 산 안에 위치한 관음사로 가는 등산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계곡이 바로 탐라계곡이다. 탐라계곡은 제주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계곡으로 한라산에서 가장 깊은 계곡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총 길이가 150m가 넘는데 중간의 등산을 중심으로 동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으로 나뉜다. 동쪽 계곡은 높이가 50m에 가까운 이끼폭포가 흘러내려 태곳적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 전남 구례 용지동계곡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마주본 백운산의 계곡 가운데 하나로 간전면 금산리 용지동 마을에서 효곡저수지에 이르는 3km의 계곡이다.

상류의 용지동 마을 밑에는 폭포와 용소, 협곡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량이 풍부하고, 우거진 숲속의 맑은 물은 여름에도 차가워 발을 담그기 힘들 정도다.

용지동 마을 앞에 있는 높이 10m의 백룡폭포는 급하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일품이고, 계곡 곳곳에 야영터가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전남 광양 동곡계곡

동곡계곡은 백운산 4대 계곡 중 가장 크고 유명한 계곡으로 광양읍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간다. 백운산 정상과 파리봉 사이의 한재에서 시작해 무려 10km에 이르는 긴 물줄기를 따라 학사대, 용소, 장수바위, 선유대 등의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백운산 산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오가는 계곡이기도 하다.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으며 희귀식물이 많아 동곡계곡과 백운산 일대는 자연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티없이 청정하다. 물살이 세지 않고 수온도 너무 차갑지 않아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위치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문의 033-636-7700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문의 061-780-2224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문의 061-797-2721

정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추억의 자동차부터 세계적 명차까지 ‘차 마니아’ 주목!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평가받는 바퀴는 기원전 5천년 경부터 사용돼 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바퀴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로 진화해, 스스로 길을 찾고 주치를 하게 되기까지 고작 200여년이 필요했을 뿐이다.

바퀴가 만들어 낼 새로운 진화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 미래를 엿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도시,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박물관을 찾았다.

취미에서 시작된 자동차 역사 박물관

울산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공장터를 잡은 곳이며, 지금도 왕성한 생산력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주연자동차 박물관은 이런 울산에 어울리는 맞춤형 박물관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지만, 소장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가치 등 그 내실에 비해 비교적 입 소문이 덜 난 곳이다.

그런데 '주연'이란 이름이 웬지 익숙하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박물관

관은 삼산대로에 위치한 주연성형외과의 주연상 원장이 설립했다. 우아함과 미적 가치를 두루 갖춘 클래식 차에 이끌려 주연상 원장이 20년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40여종의 소장품들이 모여 박물관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를 위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동차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우리 고장에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3년 5월 박물관



물관으로 용도를 바꿔 건축, 개관했다.

박물관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자동차와 관장 부부가 취미로 직접 만든 각종 프라모델이 전시돼 있다.

가득한 볼거리, 키덜트(Kidult)의 천국

앵무새가 커다랗고 또렷한 소리로 “안녕”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1층은 ‘세계의 명차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의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는 각 차량은 간간히 실제 주행도 한다.

옛 마차의 모양이 남아 있는 원시형 자동차로 구(舊)한말 고종황제가 탄 차와 동일한 모델이라는 포드 T형 자동차부터 오래된 벤츠시리즈, 벤틀리 등 옛날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클래식한 차들도 볼 수 있다.

국내 유명기업 회장이 탄 차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유명해진 빨간색 포르쉐는 ‘서울55 고 500I’의 번호판을 달고 있어 마니아층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즐겨 탔다는 캐딜락 프리트우드와 검정색 영국택시로 사용됐던 오스틴 Fx를 볼 수 있다. 오스틴 Fx는 영화 셜록홈즈 등에서 자주 등장했던 모델로, 주인공이 금방이라도 고뇌에 찬 표정으로 차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다.

하얀색으로 앞 범퍼(Bumper) 부분이 쪽 뺀어 나온 날렵한 형태의 칼리스타는 영국 국기가 새겨져 있어 외국산 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쌍용자동차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2인승 차라고 한다. 칼리스타는 영국 부품을 수입해서 만든 차였는데, 당시 컨버터블(Convertible) 차량에 대한 이질감 탓에 2년 간 78대만 생산되고 단종되고 말았다.

2층은 ‘세계의 국민차 전시관’이다. 2차 대전 당시 일시적으로 만든 수륙양용차 쉬빔바겐은 군복 얼룩무늬 외장을 한 모습이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을 연상시킨다.

국민차 전시관을 지나면 1인용 경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다. 이 비행

기는 실제 연료만 넣으면 언제든 실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3층은 ‘추억의 아빠 자동차 전시관’으로 국산차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1세대 소나타와 포니, 스텔라를 비롯해 세 바퀴로 굴러가는 삼륜차인 가아 K360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뒷부분이 작은 트럭처럼 생긴 이 삼륜차에는 석유 곤로며 오래된 선풍기, 카세트 등 추억의 물건들이 한 가득 실려 있어 운치를 더한다.

4층은 탱크와 비행기, 자동차 등 프라모델과 RC(Remote Control/무선 조종) 헬기 전시관으로 총 4만여종의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다. 옛 비행복을 입은 마네킹이 전시장 곳곳을 안내하듯 서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모형 비행기가 장관을 이룬다.

자동차에 대한 개인의 관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 된 주연자동차 박물관.

언젠가 이 박물관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미래의 새로운 자동차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주소 울산 남구 삼산동 194-16번지
관람 시간 평일 오후 12시 ~ 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오전 11시 ~ 오후 5시
입장료 성인 6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2천원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052-267-2031





세母子,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활짝 열어놓은 문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박미자 씨(55세, 동구 서부동)를 만났다. 안으로 들어가니 정돈되지 못한 살림살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허름한 집이 애처롭게만 느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행한 삶

지적장애 3급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박미자 씨는 몇 달 전 교통사고까지 당해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충청도가 고향인 그녀는 결혼한 후 울산 방어진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다 목재일을 하던 남편이 갑작

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몸져눕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박미자 씨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 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병든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아들까지 온전히 그녀가 떠안게 되면서 그간 안해 본 일 없다고 한다. 2013년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마저 박미자 씨의 곁을 떠나고, 두 아들만이 박미자 씨의 전부가 되었다.

이겨낼 수 없는
가난과 고통스러운
불행의 연속에도
박미자 씨는 아직 곁에 있는
두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본다

되돌아보니 가장 후회스럽고 가슴에 사무치는 일은 박미자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장남인 이하섭 씨(30세)가 다락방에서 가루비누를 먹었던 일이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맛이 없으면 먹다 뱉어 냈으면,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 탓에 아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만 같아 박미자 씨는 아직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이후로 이하섭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정서불안 증세로 며칠씩 가출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세상과의 소통이 두려워서인지 낯선 방문객들에게 끝내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차남 이호섭 씨(26세)는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크고 다부지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엿한 가장이다. 현재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입이 불안정해, 늘 걱정이라 한다.

두 아들이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삶

박미자 씨는 집 안에 있으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종종 환청이 들려와 거의 현관문을 열어놓고 산다고 한다. 그녀가 집에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고 공포에 떠는 것은 단순히 가벼운 병이라 여겼던 남편이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곁을 떠난 상실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가난과 고통스러운 불행의 연속으로 생겨버린 좌절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곁을 지키고 있는 두 아들이 있기에 박미자 씨는



다시 한 번 힘을 내본다. 박미자 씨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어려워 수화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꾸준히 말하기를 연습한 결과, 지금은 무리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제 자매와 친척들도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 왕래하기가 쉽지 않고, 각자의 삶이 버거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치 않은 몸으로 가끔씩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박미자 씨와 늦은 나이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이하섭 씨, 안정적인 일자리로 어머니의 힘이 되고 싶은 이호섭 씨. 이 세 모자가 다시 쓰는 희망 일기에 우리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 계좌
새마을금고 9002-1733-5006-2
(예금주 : 박미자)

생활습관만 개선해도 타는 듯한 가슴 쓰림 싹~

위식도 역류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 ①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식사하기
- ② 식후 바로 눕지 않기
- ③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커피, 야식 등 삼가기
- ④ 잠자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기
- ⑤ 엎드려 자지 않기
- ⑥ 신 과일 주스, 탄산음료 피하기
- ⑦ 비만인 사람은 체중 감량하기
- ⑧ 복압을 증가시키는 꽉 조이는 옷 피하기
- ⑨ 일상 생활에서 몸을 구부리는 동작 줄이기
- ⑩ 식후 바로 과격한 운동 피하기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어떤 병인가요?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불편한 증상이란 실질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도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2일 이상 발생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식도 역류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식도염으로 인한 출혈, 식도궤

양, 협착 등의 식도 합병증 혹은 역류로 인해 기인된 천식, 흡인성 폐렴과 후두염 등 식도 외 합병증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질환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식후에 정상적으로 역류를 방지하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식



도열공 탈장 등으로 기능이 약해져서 식후 위 내 압력이 증가할 경우 역류가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위 기능의 저하, 식도 기능의 저하, 비만 등으로 인한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지는 것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합니다.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부 식도 괄약근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제의 복용·당뇨·비만·임신·술·담배·커피·탄산음료·튀김·기름진 음식·초콜릿 등의 음식, 과식, 야식 등의 식습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크게 전형적인 증상 및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입니다. 구토, 위장관 출혈, 빈혈, 체중 감소, 삼킴 곤란 혹은 흉통 등의 경고 증상이 없으면서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추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목 이물감, 마른 기침, 후두염, 치아 부식, 폐렴 등 위 내용물의 역류로 야기될 수 있는 증상들로, 전형적인 증상 없이 비전형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없으면 우선 위산 분비제 등 약물 투여를 해 보고, 충분한 증상 호전이 있으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진행해도 증상 호전이 불충분하거나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체중 감소, 토혈 등 기질적 원인을 시사

하는 소견이 있으면 위 내시경 검사, 식도 산도 검사 등을 시행해 역류에 의한 식도 손상이 있는지, 병적인 위산 역류가 있는지, 혹은 위암, 위궤양 등 다른 기질적 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크게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시행 가능한 예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 피하기 : 커피, 술, 초콜릿, 지방식 등	가슴 쓰림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 매운 음식, 감귤류 과일, 탄산음료 등	하부 식도에 위산 노출을 감소시키는 생활 습관 갖기 : 체중 감량, 금연, 금주, 머리 쪽 침상 올리기, 식후 2~3시간 후 취침하기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모든 환자가 치유되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거나 장기적인 증상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병태생리에 기반을 둔 위산 중화 약물, 항역류 장벽기능 강화 약물, 점막 저항과 회복 강화 약물, 감각능 조절 약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 위산 억제 약물인 양성자 펌프 억제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 정인두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심리상담을 받는 나, 비정상인가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회사에서는 상사, 동료가 특 던진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담'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상담 받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정신 질환보다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진로나 중요한 의사결정, 부부가족 관계의 어려움, 이별을 애도하는 일, 힘든 상황을 겪은 뒤 충격 다스리는 일, 의사소통의 어긋남, 지지와 안정감이 필요한 경우 등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다양한 정서적 불편함으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이 너무 심한 사람은 오히려 상담을 하기 힘들다.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상담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은 약한 사람이나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도 기억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느낌'도 기억한다. 그러나 '사실'은 잊혀지지만, '이미지'나 '느낌'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믿어지지 않게 작아졌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지금의 나는 이미 그 때의 어리고 힘 없는 내가 아닌데도, 어릴 적 경험에 대한 감정은 그 때의 크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두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장이 작아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경험도 다시 꺼내 보면 이제는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들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 두렵고 거대한 감정을 확인하고자 시도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럴 때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은 상담사와 함께 기억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갖는 일

이기 때문이다. 상담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묶고 있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담은 자기 삶을 남에게 기대는 비겁한 행위 아닌가요?

삶이 힘들어도 애써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까 봐 겁이 난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기억 속의 큰 감정을 확인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경험과 만나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일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상담'은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불가능한 완전함을 쫓느라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자신과 만나는 일이다. 따라서 '상담'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그 모습에서 가치를 찾아내려는 간절한 노력이다.

모든 문제는 참고 견디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누구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살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심리적으로 예민해져 생각이 유연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 옳을 볼 수 없을 때는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일이 점점 꼬여서 막막해지고 만다. 이럴 때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내 이전 경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하지만, 상담의 어느 시점이 되면 현실의 문제에 골몰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게 된다. 이 때 상담사는 단지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어릴 적 경험하지 못한 지지를 보내주고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며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야기한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날의 경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경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 때 엄마의 그 말이 나를 거절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랑이었구나' '그 때 내가 도망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색깔로 쓸 수 있게 된다.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 트라우마가 되어 자신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지만, 잘 치유하면 오히려 새 살이 돋아나고 그만큼 성숙해진다. 상담을 한다고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하는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변하지도 않고, 변한 줄 알았던 내가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고통을 견뎌내고 자신과 마주서서 다시 일어서려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상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막막했었는데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노르시핑서 신규 수주에 전력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르시핑(Nor-Shipping)'에 참가해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쳤다. 2년마다 열리는 노르시핑은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1천100여개 해운사와 조선사 등이 참가했다. 조선 3사 경영진은 박람회 기간 동안 프론트라인(Frontline), DHT, 솔방(Solvang), 호그 LNG(Hoegh LNG) 등 주요 선사들과 잇달아 미팅을 갖고, 신규 선박 발주를 비롯해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협력을 다졌다. 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한국관을 마련하고, 환경 규제 강화로 비교적 발주가 활발한 LNG 관련 선박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장영실상

현대중공업의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HP SCR)가 6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장치는 선박용 대형엔진에서 고온(300~520℃), 고압(1~5bar)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암모니아 촉매로 분해해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한 황(黃) 성분을 중화시키는 촉매제조 기술을 적용, 선박용 경유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인 일반 중유를 연료로 사용해도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 방지 3차 규제(Tier-III)를 충족할 수 있다.



차기 기뢰부설함 '남포함' 인도

현대중공업이 6월 9일 3천톤급 차기 기뢰부설함인 '남포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길이 114미터, 폭 17미터 규모의 남포함은 최대속력 23노트(42km/h)에 12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자동화 기뢰부설장치와 함께 전자해도항해체계(ECDIS)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시스템 고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감시체계, 유도탄 방어유도무기(SAAM), 스틸스 기능 등을 탑재해 작전 능력을 크게 높였다. 남포함은 7개월 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7년 해군의 첫 번째 기뢰부설함인 '원산함'을 건조한 바 있다.



러시아 어둡투 공사 마무리

현대중공업이 6월 12일 '어둡투(Odoptu) 원유가스생산시설 증설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원유와 가스를 압축해 운송하는 설비인 매니폴드(Manifold)와 수처리주입시스템 등 마지막 모듈(Module) 27기를 러시아 현지로 출항시켰다. 어둡투 공사는 러시아 사할린섬 어둡투 유전의 원유가스 생산량 증설을 위한 각종 설비들을 제작하는 공사로, 지난 2014년 러시아 엑스 네프트가스(Exxon Nefgas)사로부터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모듈 제작에 들어가 지난해 5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총 16기의 모듈을 공급했다.



일렉트릭, 중저압차단기 러시아 공략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배전반 제조업체인 체아즈(ChEAZ)사와 '중저압차단기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고,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1kV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와 기중차단기(ACB) 등 중저압차단기 2종을 체아즈사에 반제품 형태(SKD)로 공급하고, 체아즈사는 이를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생산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영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며, 양사는 빌딩이나 석유가스플랜트 등에 설치되는 중저압차단기 시장 개척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렉트릭, 개폐제어기 국내 최초 개발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초고압차단기(170kV 이상)에 설치되는 '개폐제어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신김포변전소에서 첫 시연회를 가졌다. 개폐제어기는 초고압차단기의 개폐 시점을 최적화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과전압(Switching Surge)을 줄이는 장치로, 현대일렉트릭의 개폐제어기는 해외 제품보다 동작 정확도를 40% 이상 개선하는 등 우수한 제어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강도의 외함(外函)과 보드를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개발을 통해 일부 해외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개폐제어기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와 연계된 초고압차단기의 수주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현대건설기계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영업목표 달성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6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전사 회의에는 공기업 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기계의 전 임원과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영업목표 달성 발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어 16일에는 분당 본사에서 7개 해외법인지사의 법인장지사장 및 영업부문 임직원들이 해외 시장의 영업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 러시아 시장 공략 박차

현대건설기계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잇달아 참가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CTT 2017'에 참가해 현지 맞춤형 모델인 수륙양용 굴삭기 등 총 13종의 장비를 전시했다. CTT는 세계 5대 건설장비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30개국 557개 업체가 참가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노보쿠즈네츠크에서 열린 '우골로시 & 마이닝(UGOL ROSSI & MINING)' 전시회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쳤다.



아스팔트운반선 화물창 일체형 탑재 성공

현대미포조선은 6월 21일 1도크에서 건조중인 태국 '팁코(TIPCO)'사의 1만2천톤급 아스팔트운반선인 선번 2635호에 들어갈 1번 카고탱크를 47기의 집(JIB) 크레인을 이용해 일체형으로 탑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탑재된 일체형 카고 탱크는 길이 38.45m, 너비 18.35m, 높이 10m의 체원을 갖췄으며 무게는 6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동안 집크레인의 하중 부담 등의 이유로 아스팔트운반선의 카고탱크를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 탑재한 뒤 도크에서 조립하던 것을, 이번 공법 개선을 통해 일체형으로 탑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도크 내 건조 작업 부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안벽 공기도 최대 4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선박설계 검증시스템 개발

현대미포조선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박 설계 검증 및 통합 업무 시스템 개발을 위해 6월 15일 신관 설계세미나실에서 'ICT융합 조선해양 기술개발사업 착수식'을 갖고,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업은 조선 산업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으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 및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융합 Industry 4.0s 공모사업'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및 전문 S/W 개발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지원해 지난 4월 국책 과제로 선정됐다.



러시아에 합작사 설립, 선박기술지원 협약 체결

현대삼호중공업이 러시아에 선박 엔지니어링 합작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인 가삼현 사장,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사 이고르세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즈베즈다-현대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즈베즈다-현대에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와 구매, 인력,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즈베즈다조선은 2018년부터 아프리카막스급 유조선을 건조할 예정이다.



전 임직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현황 설명회는 지난 5월 29일 노조 확대간부, 회사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작돼 6월 7일까지 직원 400여명씩 총 10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실시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균 부사장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순환 무급휴직, 연월차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대비나신, PC선 2척 동시 명명

현대비나신조선(HVS)이 6월 13일 베트남 현지에서 PC선 2척에 대한 동시 명명식을 가졌다. 이들 선박은 지난 2015년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사로부터 수주한 5만톤급 선박들로, 선주사에 의해 '오리엔트 챌린지(Orient Challenge)'호와 '오리엔트 이노베이션(Orient Innovation)'호로 각각 명명됐다. 오리엔트 챌린지호는 이날 명명식 이후 곧바로 선주사에 인도됐으며, 오리엔트 이노베이션호는 7월 중순 인도될 예정이다.



재해복구센터 운영 돌입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경기도 용인시 전문데이터센터(IDC)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재해복구센터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도 정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주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전산 자원을 원격지에 보존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구축한 재해복구센터는 주전원을 이중화하고 진도 7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 됐으며, 비상발전기 등 관련 설비도 갖추고 있다. 한편, 재해복구센터가 운영에 돌입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24시간에서 1주일 내에 주요 시스템들에 대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7 전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상'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6월 8일 '2017년 전라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참가한 2팀이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악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남도에는 있는 13개 기업에서 22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합을 벌였다. 선장설계부 '이글스분임조(황규성 과장)'는 '컨테이너선 화물창용 통풍 의장 프로세스 개선'을, 도장2부와 사내협력사 휘장산업 연합팀인 '무한대+무지개 분임조(최광민 팀장)'는 '선박 표면 처리 방법 개선으로 작업 시간 단축'을 주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2팀은 오는 8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척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6월 12일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S843)의 명명식을 1인박에서 개최했다. 선주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선주측 인사에 의해 '마하리(MAHARAH)'로 명명된 이 선박은 2년 전 바흐리사로부터 수주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 시리즈 호선 중 2번째로, 지난 2월 용골거치, 4월 진수를 거쳐 최종 인도됐다. 알리알-하비 바흐리 CEO 권한 대행은 "현재까지 10척의 선박을 인도 받았고 현재 추가로 8척의 VLCC를 발주한 상태"라며, "바흐리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여년 이상 매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산나눔재단 |



엔 포럼 참가자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홈페이지(www.nforum.kr)를 통해 '2017 엔 포럼(N_FORUM)'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수 700명)

이번 포럼은 7월 7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개최되며, '변화의 시대, 사라지는 경계 - 비영리는?'을 주제로 인디씨에프 박정화 대표, 쉐어앤케어 황성진 대표 등 전문가 7명의 발표와 함께 기조 강연이 잇달아 진행된다. 한편, 엔 포럼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출신 동문들이 국내 비영리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자발적으로 열고 있는 행사다.

| 서울아산병원 |



사우디 킹사우드 의대 학생 연수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의과대학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4주간의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대학 연수생들은 서울아산병원을 직접 방문해, 심장내과 등 14개 진료과에서 첨단 치료법과 수술을 참관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배웠다.

한편, 사우디 최초의 의과대학인 킹사우드 의대는 지난 2013년 미국 타임즈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의학생명과학 분야 159위에 오른 명문대학으로 2014년 서울아산병원과 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으며, 2014년 3명, 2015년 27명, 2016년 30명의 학생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받았다.

| 울산대학교병원 |



지역암센터 최다 통합진료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 울산지역암센터가 전국 지역암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통합진료를 하고 있다고 6월 6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지난해 450건의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 전국 12개 지역암센터의 평균치(70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진료 기록을 세웠고, 환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 90%로 나타나는 등 통합진료에 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울산대병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4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의들이 한 장소에서 임환자에게 진단부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추적 관찰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통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대학평가서 국내 17위 올라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영국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7~2018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공동 17위에 올랐다고 6월 8일 밝혔다.

대학평가기관인 QS가 △학계 평가 △논문당 피인용 수 △교수당 학생 수 △졸업생 평판도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등 6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울산대학교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국내 17위를 기록했다. 또 울산대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2만6천개 대학 가운데 상위 2.1%인 세계 551~600위권 대학에 올랐고, △논문당 피인용 수(국내 9위) △교수당 학생 수(국내 16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울산대학교 |



7년 연속 '세계적 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6월 13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사업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울산과학대는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그동안의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WCC 계속지원 대학에 지정됐고, 최대 4억원까지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WCC 대학은 올해 전국 137개 전문대학 가운데 11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울산과학대학교 등 3개 대학만 사업 첫 해인 2011년부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



'서비스 신뢰성 대상' 수상

호텔현대(대표이사: 고승환)가 5월 25일 제주에서 열린 '제 5회 한국신뢰성대상 시상식'에서 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신뢰성대상은 한국신뢰성학회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호텔현대는 다양한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신뢰도를 끌어올린 서비스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호텔현대는 지난 1971년 경포대를 시작으로 경주, 울산, 목포, 블라디보스토크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정상회담과 APEC 회의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며 세계적인 서비스 수준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 호텔현대 |



‘이 시대 가장 로맨틱한 색소폰 연주자’ 데이브 코즈(Dave Koz)가 9월 19일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색소폰이 선사하는 감각적인 재즈 선율로 가을의 밤이 낭만으로 물들 예정이다. 위렌 힐, 케니 지와 함께 ‘세계 3대 색소포니스트’로 손꼽히는 데이브 코즈는 로맨틱한 선율을 사랑하는 스무드 재즈의 대표 주자로 통한다.

그는 세련된 감각의 퓨전 재즈와 대중적인 팝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무대 위에서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셀린 디온, 레이 찰스 등 최고의 팝 스타를 비롯해 윤종신, 박정현 등 국내 유명 가수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데이브 코즈는 몇 번의 내한공연을 통해 한국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또 한 번 펼쳐질 그의 금빛 색소폰 선율과 함께 꿈같은 9월의 밤을 만끽해 보자.

Profile

데이브 코즈(Dave Koz)

기타리스트인 친형 제프 코즈의 영향으로 색소폰과 인연을 맺게 된 데이브 코즈는 제프 로버 밴드에서 세션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 첫 앨범 〈Dave Koz〉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빌보드 컨템포러리 재즈 차트에 25주 동안 머물렀고, 특히 ‘Castle of Dreams’, ‘Nothin’ but Radio On’, ‘Emily’ 등의 연주곡이 크게 히트하며 아시아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어서 두 번째 앨범 〈Lucky Man〉(1993) 역시 100주간 빌보드 재즈 차트에 머물며 플래티넘 기록을 달성하는 등 가장 대중적인 색소폰 연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람 정보

일시 9월 19일(화) 저녁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1층 5만5천원,
2층 3만5천원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가을밤 수놓는다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몸짓!
런던의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댄스”

“Some Of The Best Dancing
You'll See On The London Stage”

— 영국 일간지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토록 색시하고 엄청난 탱고라니”

“Stunning! Tango At It's
Sexiest And Most Stupendous”

—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



오감만족! 탱고의 매력에 빠지다!

발레의 우아함과 플라멩코의 격정이 함께 녹아있는 춤, ‘탱고’는 현존하는 모든 댄스 중 남녀가 가장 밀착된 호흡을 주고받는 관능의 춤이자 불타오르는 격정을 한 편의 드라마로 승화시킨 예술의 춤이다.

그 중 탱고의 본고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10명의 남녀가 뭉친 ‘탱고 파이어’가 울산을 찾아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춤을 선보인다.

육감적인 다섯 쌍의 댄서와 한 명의 매혹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탄생한 세계 최고의 탱고 그룹 ‘탱고 파이어’는 2005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A Must-See(반드시 봐야 하는 공연)’ 타이틀에 빛나는 실력파다.

2007년 첫 내한 이후 10년만에 재성사된 탱고 파이어 내한공연은 벌써부터 한국 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2003년, 2005년 양해에 걸쳐 월드 탱고 챔피언십을 수상한 헤르만 코르네오(German Cornejo)와 그의 파트너 히셀라 갈레아시(Gisela Galeassi)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연의 높은 완성도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 탱고음악의 거장 피아졸라(Astor Piazzolla),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의 명곡을 통해 만나는 정열적인 탱고! 강렬한 리듬과 매혹적인 춤사위 속에서 탱고의 매력을 느껴보자.

주요 프로그램

Astor Piazzolla, Carlos Gardel, Osvaldo Pugliese 8



관람 정보

일시 10월 24일(화) 저녁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R석 8만5천원,
A석 6만5천원, B석 4만5천원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휴식 마친 호랑이의 더 뜨거운 후반 질주”

뜨거운 7월, 여름의 한복판이다. 2017 K리그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무패의 관성을 달리며 리그에서 가장 핫한 6월을 보낸 울산은 더 뜨거운 후반을 준비 중이다.

울산은 지난 6월 초 A매치 휴식기를 맞아 김도훈 감독의 고향인 통영에서 닷새간의 특별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통영을 찾게 된 오르샤는 현지의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으며, 특히 구단에서 특별 보양식으로 마련한 장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한다.

알찬 휴식기를 보낸 울산은 포항과의 동해안 Derby에서 극적인 원정 승전고를 울리며, 리그 선두를 목전에 두게 됐다. ‘물이 오른’ 이종호와 오르샤, 이승준 등 삼각편대가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용대사르’ 김용대 골키퍼는 믿기 힘든 선방쇼를 선보이며, 포항을 녹여버렸다.

강팀을 이겨야 진짜 강팀이다

여름 이적 시장을 맞아 각 팀별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 춘추 전국시대는 한동안 계속될 모양새다. 울산이 확고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팀과의 매치업이 많은 7월을 성공적으로 보내야 한다. 특히, 8일(토) 열리는 전북 원정 경기는 리그 우승을 위해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경기이자, 지난번

홈에서의 아쉬운 무승부를 해소할 절호의 찬스다.

전북현대의 요새인 전주성을 무너뜨리기에 울산의 팀 분위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강원과 수원은 상위 스플릿 유지를 위해, 꼴찌 싸움 중인 광주와 인천은 중위권 도약을 위해 혈전을 각오하고 있어 울산의 7월은 한 여름 밤의 축구 열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팬들을 위한 시원한 골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문수 구장에서 스트레스와 더위를 함께 날려 보내자!

울산현대 7월 경기일정

일시	상대팀	장소	비고
7/1(토) 저녁 7시	수원 삼성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7/8(토) 저녁 7시	전북 현대	전주월드컵 경기장	K리그
7/12(수) 저녁 7시30분	대구 FC	대구스타디움	K리그
7/15(토) 저녁 7시	광주 FC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7/19(수) 저녁 7시30분	강원 FC	평창알펜시아	K리그
7/22(토) 저녁 7시	인천 유나이티드	울산문수 축구장	K리그

이달의 선수 - FW 이종호

헌신적인 플레이로 ‘이기는 경기’ 최선



자신의 골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한 선수가 있다. 지난 연말 전북현대와 3대2 메가톤급 트레이드를 통해 울산의 유니폼을 입은 이종호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매 경기 몸을 불사르는 투혼으로 울산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이종호 선수를 만나보았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공격수 이종호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의 첫 시즌이다. 울산 유니폼을 입은 소감은?

먼저 K리그를 대표하는 팀인 울산에서 뛰게 돼 팀 관계자분들과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은 제가 선수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춘 팀이기에 울산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울산의 승리 응원가인 ‘잘 가세요’를 들으며 집에 갔는데, 올해는 다른 팀 선수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며 돌려보내게 돼서 즐겁고 신기합니다. 승전가가 계속 그라운드에서 울려 퍼지도록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으로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답변이다. 현재 울산의 팀 분위기가 반영 된 듯 한데?

그렇습니다.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다 보니 선수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는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연습했던 플레이가 살아나서 팀 분위기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 경기 헌신적인 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지만, 골 욕심은 더 날 것 같은데?

공격수라는 포지션이 골을 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 욕심은 나죠. 하지만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찰러주는 일 역시 공격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한 20 공격포인트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도훈 감독님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출신이다. 조언은 자주 해주시는지?

경기 스타일은 저와 조금 다르지만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향한 움직임이나 슈팅 방법 등 정말 많은 부분을 조언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친형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먼저 다가와 장난도 치시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격려도 많이 해주시죠.

올 시즌 본인의 목표와 울산의 목표는?

제 목표가 팀의 목표와 같습니다. 울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전북, 서울, 제주 등 강팀이 많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강팀을 이겨야 우승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꼭 문수구장에서 이긴 다음에 ‘잘 가세요’ 응원가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 많이 보러 와주세요!

▶ 힘찬 각오를 전하는 이종호 선수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한번에!

길을 걷다가 신나는 음악이 들리면, 발걸음이 저절로 경쾌해진다. 가볍고 흥겹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무기력하다가도 다시 에너지가 분출되는 기분을 느낀다.

한마음회관 무용실을 지나칠 때면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왕래를 위해 출입문을 열 때 새어 나오는 음악소리에 맞춰 실 새 없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꿈틀거린다.

파워 필록싱 오전반 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진 씨(37세)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열정적인 강사님과 긍정적인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운동하는게 정말 좋아요. 땀을 한 번 짹 흘리고 나면 집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만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한다. 필록싱(Piloxing)은 필라테스(Pilates)에 복싱(Boxing)과 댄스(Dance)를 결합한 운동으로, 댄서이자 연예인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비베카 젠슨(Viveca Jensen)이 만든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상륙한지는 2년 정도 됐는데, 필라테스의 유연함과 복싱의 민첩성, 댄스의 신나는 동작이 가미돼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열정적인 필라테스 지도로 회원들의 마음을 쏙 빼앗은 박미진 강사(48세)는 “필록싱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몸의 뭉친 근육을 풀거나, 옆구리 살, 뱃살 다이어트에 탁월하다”고 말한다. 이어 “필라테스는 하체를 강화시키고 단전에 힘이 들어가게 해 자세 교정에도 좋다”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필라테스는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운동”이라며 “필라테스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장점을 늘어 놓는다.

바야흐로 옷의 무게뿐만 아니라 몸의 무게도 줄여야 할 여름이 다가왔다. 몸의 균형을 제거해 가벼운 몸으로 자신있게 여름을 맞이 하길 원한다면, 파워 필록싱을 추천한다.

최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한마음회관 '파워 필록싱'

시 간 월 수 오전 11시 40분 ~ 오후 12시 40분 / 수, 금 저녁 7시 ~ 8시
장 소 한마음회관 3층 무용실
수강료 15만원/3개월

공기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함께 공존하듯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조용한 기술이 있다. 우리는 이를 '캄테크'라고 부른다.

'캄테크'는 조용하다는 의미의 캄(calm)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일상 생활환경에서 센서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를 보이지 않게 내장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 보험회사 존 핸콕(John Hancock)의 운동량 확인 프로그램은 캄테크의 성공적인 사례다. 존 핸콕은 스마트 밴드 핏빗(fitbit)을 활용해 보험 가입고객들의 운동량을 확인하고,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운동 효과와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캄테크의 혁신적인 사례로 알려지게 됐고, 존 핸콕의 기업가치도 덩달아 크게 상승했다.

도로 위에도 캄테크가 접목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도로가 대표적인데, '압전 도로'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전기로 바꿔 거리의 가로등을 밝힌다.

무선 충전차로 역시 캄테크의 확장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다. 도로에 충전 장치가 있다면 시동을 켜고 달리는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물론 도로 밑에 충전 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영국의 경우 도로 일부 구간에 충전 포인트를 두는 방식으로 무선 충전차로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캄테크 기술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국내 한 전자회사에서 2015년 출시한 에어컨은 인체감지 카메라가 장착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수나 위치, 활동량을 감지한 후 필요한 곳에 알맞은 냉기를 자동 공급한다.

또 2016년에는 스마트 홈서비스가 가능한 냉장고가 출시되기도 했다. 내부 카메라를 통해 음식물의 보관상태와 유통기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식재료를 바로 주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캄테크는 평소에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 혜택을 주며 사용자에게는 최소한의 주의와 관심만을 요구한다. 소리 없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맞춤 혜택을 주는 일련의 과정이 캄테크인 것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캄테크, 그 파급력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 기대된다.

참고자료 트렌드 코리아 2017, 김난도 하

“혜택은 드러나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술의 배려”





‘먹방’ 찍으러, 극동 러시아로 떠나볼까?

민규리 사원 | 현대미포조선 노사협력부

5월 초 생각보다 긴 연휴를 앞두고 ‘그럼 떠나볼까?’라는 말로 우리의 식도락 여행이 시작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비행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유럽이자, 러시아의 작은 도시다. 루블화 환율이 많이 하락해 부담 없이 여행하기 좋다는 말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지로 결정했다. 생소한 도시라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든든한 정아람 사원과 평소 ‘라라투어’라고 불리는 유유라 사원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마음이 놓였다. 첫날은 밤 비행기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가는 일정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기가 보였는데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게 두 배로 요금을 불러서 거절하고, 요금을 낮춰 부른 다른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여행 동안 느낀 것이지만 택시비는 기사들마다 부르는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막심택시’ 어플을 다운받아 여행하길 추천한다. 둘째 날, 우린 ‘우호프블린’이라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팬케이크 전문점인데, 팬케이크 안에 두툽한 토마토와 치즈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마음에 들었다.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러시아의 대표 커피숍



‘로딩커피’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도 하고 오후 일정도 어디로 갈 것인지 정했다. 점심메뉴는 햄버거 전문점인 ‘댁버거(DAB BURGER)’에서 햄버거와 흑맥주를 주문했는데, 패티가 입에서 사르르 녹고, 풍미가 깊은 흑맥주가 느끼한 맛을 잡아줘 만족스럽게 점심식사를 마쳤다. 점심을 먹고 중앙광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 저녁을 먹으러 해양공원에 있는 ‘킹크랩마트’로 향했다. 해양공원에 앉아서 따뜻하게 데워진 곰새우와 킹크랩을 먹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살이 가득 차 있어서 너무 맛있었다. 특히 킹크랩마트에서 파는 곰새우는 한국에서 먹어보기 힘든 음식이라 여행을 갔다면 한번은 먹어보길 추천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으로 향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내부는 생각보다 안락하게 꾸며져 있었다. 2층 침대가 양 옆으로 있었고 칫솔과 실내화,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기 전에 구매한 도시락과 라면을 먹으며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셋째 날,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자고 일어나니 하바롭스크에 도착했다. 하바롭스크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러시아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차(戰車)들이 줄을 지어가는 광경이 굉장히 놀라웠다. ‘루스키(RUSSKY)’ 레스토랑에 가서 러시아 전통 음식과 전통 음료 모르스를 먹어보고, 걸어가는 길에 ‘전쟁영웅 기념탑’을 둘러봤다. 전쟁영웅 기념탑에는 당시 전사한 수십만 명의 군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학군단의 교대식도 볼 수 있었다. 프레오브라젠스키 성당 앞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며 걷다 보니 아무르 강에 도착했다. 그 길 주변엔 정갈하면 서도 오랜 역사의 기품을 간직한 정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대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오랜 감상 끝에 우린 근처 피자 전문 식당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 피자집은 특이하게도 직원들이 할로윈 파티 분장을 하고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맘마미아!”라고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주문했다. 피자과 맥주를 시켰는데 이때까지 먹은 피자 가운데 베스트 3위 안에 드는 맛이였다. 피자과 배를 채운 후 ‘커피퍼퍼블릭’으로 가서 커피와 주스를 섞은 음료를 먹어보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조합이였다. 그리고 조지아(그루지아)에 ‘SATSIVI’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치즈와 달걀이 담긴 빵요리와 양고기 샤슬릭, 치킨 요리를 먹었는데 맥주와 곁들어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다. 시설은 낙후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트램을 타고 하바롭스크역으로 이동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열차에서 와인을 마시며 마지막 밤 일정을 마무리했다. 넷째 날은 애플레어 가게에서 디저트와 체리커피를 먹었는데, 빵과는 달리 체리커피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다. 식당으로 이동해 러시아 전통 수프인 보르쉬와 연어요리, 만두 등을 먹어보았는데 보르쉬는 기름진 육개장을 먹는 느낌이었다. 독수리 전망대에 도착해 탁 트인 경치를 보며 여유를 즐기고, 서로의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예약시간을 놓칠 뻔한 ‘주마(ZUMA)’ 킹크랩 레스토랑에서는 살아있는 킹크랩으로



요리하는데, 그 맛이 단연 으뜸이였다.

마지막 날은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이라 도로가 마비된다고 해서, 역까지 걸어가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행가방을 끌고 걸어가기 힘들어, 가는 길에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다. 아르바트 거리에서 어플로 호출한 택시기사님이 우리 여행 가방을 보고 승차 거부를 했지만, 다른 택시기사님이 흔쾌히 데려다 준 덕에 무사히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4박 5일 동안 먹고 또 먹고, 먹기위해 계속해서 걸었던 우리. 적다 보니 먹는 이야기밖에 없지만 더 많은 식도락 에피소드를 생략했다는 게 사실! 급하게 떠난 여행이라 걱정도 됐지만, ‘이렇게도 여행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함께 여행을 떠난 동료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정아람 사원, 유유라 사원과 함께 한 모든 것이 좋았던 여행...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매 순간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극동 러시아 먹방 여행기를 이렇게 마친다.



나의 잊을 수 없는 ‘첫 항해’

임평열 과장 |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던 나의 첫 항해는 지난 설 연휴부터 시작됐다.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승선 생활은 낯설고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초반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첫 목적지는 싱가포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주변엔 수많은 선박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선박이 번거링(Bunkering)을 마치고 다시 출항하기까지 주변 선박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정박해 있었다. 알고 보니 최근 화물부족으로 인해 출항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는 생각으로 속상하기까지 했다. 그때 저 멀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을 발견했다. 직접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건조를 담당했기에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승선 후 처음으로 일등 항해사(C/O)의 도움 요청이 있었다. 하역제어실(CCR)에 설치된 프린트의 설정



을 영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영문 버전 프로그램을 설치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다.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이 망망대해를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돌아간다면 고객을 위해 좀 더 신경쓰겠노라 다짐했다. 싱가포르에서 급유를 마치고 우리는 두바이로 향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선박 이외에는 오직 우리 선박만 항해 중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긴 항해 끝에 두바이에 도착하여 화물 엔진기술자 등이 승선하여 선박에 기름을 싣기 시작했다. 나는 당연히 항구에 접안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처음 듣고 보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항구에 다다르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옮겨 싣는게 아닌가.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기로 한 선박은 독일 선사인 ‘DS VADA’로,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서 나란히 속도를 맞추고 접안한 후 호스를 연결해 기름 옮기기에 성공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서둘러 다음 목적지인 미국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불가피한 내부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항로가 변경됐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수에즈(SUEZ)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일정 변화로 기대해 온 기호가 사라진 것과 미국까지의 도달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나의 하선 예정일이 지연된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그리고 소말리아 옆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됐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NO.6 카고 탱크 화물창에서 기름이 새기 시작했다. 파도의 롤링에 의해 선

박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더 많은 양의 누유가 발생했다. 미국 도착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파도가 잔잔하고 파도 롤링이 적은 날 선원들과 함께 화물창의 맨홀을 열었다. 검은색 화물 유(CARGO OIL)가 탱크 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 있어야 할 가스킷(Gasket)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가스킷 없이 맨홀만 설치했기 때문에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선박에서 새기 시작한 기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다행히 선박엔 가스킷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구비돼 있었다. 누유를 막기 위해 1분 1초가 다급했다. 운 좋게 새로 만든 가스킷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더 이상 화물창에서 기름이 새지 않았다. 승선생활을 한지도 어느새 한달 째, 이젠 낯선 선원들과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평생 입에는 못 달 것 같았던 그리스 음식들을 먹고, 외국 하급 선원들과 매일 농담은 물론, 영화까지 보는 사이가 됐다. 나에게 잠깐의 선상 생활이지만 이들은 10년, 20년 넘게 바다 위에서 생활 중이라 한다. 외롭고 힘든 이 바다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라 말하는 이들 앞에서, 그 동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 소홀했던 내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 어느새 최종 도착지인 미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곳에 오기까지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무려 4시간 동안 선박을 검사하는 등 그 전과는 다른 꼼꼼함이 느껴졌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하선이 결정됐다. 보일러 및 화물유 펌프용 터빈의 상태는 매우 좋았고, 펌프룸 등도 한 방울의 누유가 없었다.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몇 달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



아왔다. 길게만 느껴졌던 그날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짧았으며 이젠 그리기까지 하다. 이번 보증기사 승선 기간 동안 나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평소 반복적인 삶에 대한 불만이 선상에서의 생활에 비해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배를 짓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삶에서 다신 없을 소중한 경험과 네레우스 시핑(Nereus shipping)사의 ‘SPEEDWAY’ 선박에서의 추억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나에게 보증기사 기회가 찾아온다면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멋지게 해내고 싶다.



공작실 가는 마음으로

배정훈 과장 | 현대중공업 조선협력사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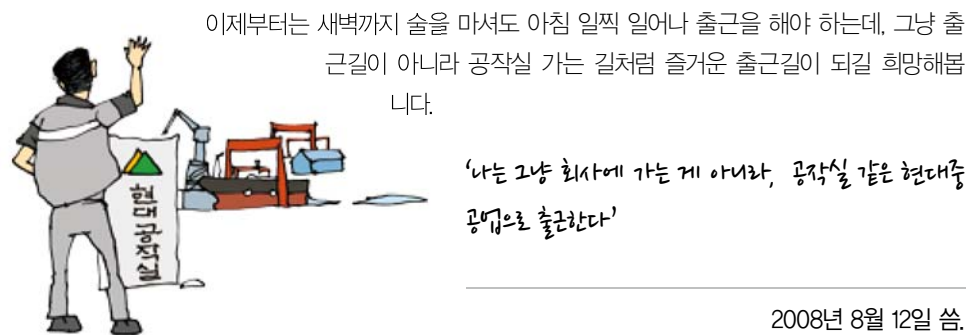
9년 전쯤, 제가 입사 후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썼던 일기를 다시 꺼내봅니다.
회사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저는 이 일기를 한 번씩 읽어보곤 하는데, 일기를 쓰던 그 때의 마음가짐이 생각
나 다시금 신발끈을 짚곤 매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과 열정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날의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날 또 일기장을 펼치니 '공작실 가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낼 회사에서 저는 노력하면서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이 소학교 시절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어 새벽 일찍 일어난다'고 하셨던 고 정주영 명예회
장님처럼은 아니더라도 회사 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군 생활 시절 저는 운전병이라 매일 차량 점호를 했었는데 이등병 땐 군용차의 시동을 거는 것 마
저도 어려워 항상 고참들에게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이등병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아침 점호시간뿐. 점호시간에 욕을 먹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시동을 잘 걸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 하면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에 힘든 이등병 시절의 아침도 나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학 후 대학 생활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낸 공작실.
공작실이 있어 저는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시험기간에도 내내 공작실에서 생활을 했고, 술을
마시다 차가 끊겨도 항상 공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난 여름의 추억이 묻어있고, 친구도 있고, 동
생도 있는 곳... 그래서 공작실 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2008년 8월 12일 씀.



현우서비스 | 김정숙

산 모랑지 돌아 후미진 기슭에
스러져 피어있는 한무리 들국화야
여린 줄기 부여잡고
숨 쉬어온 아픈 시간
먼 숲

애달게 울어대던
빠꾸기도 떠난 산야
간신히 고개 들어 쳐다본 하늘가
붉게 물든 노을에
봄, 여름이 스친다.

그래도
살아서 꽃피웠다고
스사한 바람일어
아픈 몸 뒤척이면
숨 죽이던 누런 잎에
바람이 물린다.

온 몸을 멍들게 한
차바의 가혹했던 매질에도
붓 인간들의 무수한 발자국에도

오
승리자의 말없는 거룩함이어
너 고운자태는
여름 밤하늘 은하의 물결같고
너 강한의지는
그래도 버티는 낮달 같아라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t1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1



기록형 인간 (이찬영)

이 책은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사례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나의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법의 기록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는 간편하고 많은 내용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기에 테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모를 선호합니다. 저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쓰기 및 디지털 디바이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 기록 방법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된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하기에 사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승민 대리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운영부

2



오영수 교수의 매직경제학 (오영수)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기초적인 경제 이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경제 입문서로, 낯설고 어려운 경제 용어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경제학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가 우리 생활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의 유기체로서 경제가 잘 성장하고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순환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복잡한 그래프나 수식 없이 경제학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개념 정립이 보다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소 전공서적이 부담스러운 사우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철화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3



나한테 왜 그래요? (고코로야 진노스케)

우리는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되거나 싸웠을 때 '그런 말을 하다니 기분 나쁘다', '내 마음도 몰라주다니 화가 난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 욕망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원만한 인간관계, 서로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위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심리상담사인 저자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진짜 이유가 서로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의 핵심부터 다양한 관계에 대한 조언을 차근차근 들려주고 있기에 평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우들에게 권장합니다.

오형정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4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노)

개인 혼자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 또한 '나 혼자 해봐야 그대로야, 달라지는 게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다른 사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책 속의 노인은 하루에 조금씩 나무 심기를 실천해서 삭막했던 마을을 바꾸고, 황량한 지역을 숲으로 바꿨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희생이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나무 심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책은 공동의 선을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하는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이 이 땅에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우들의 마음 속에 그려볼 만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범석

현대건설기계 ICT전략추진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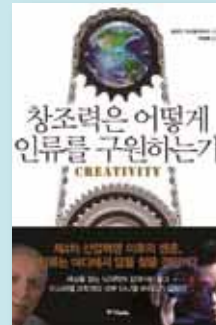
완벽한 공부법 (고영성, 신영준)

우리는 수능, 입사 시험, 토익 시험까지 하나의 시험을 끝내고 나면 공부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끊임없는 공부의 연속입니다. 그 외에도 인생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공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공부의 본질에 다가가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적 이론과 현실 사례를 총망라해 학습자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14가지의 항목을 선별하고, 각 장마다 그 항목이 왜 중요한지 근거를 붙여서 설명합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성진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6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김대식, 다나엘바이스)

이 책은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존 전략으로서 창조력을 논하는 책으로 뇌과학자 김대식 저자와 이스라엘 과학계의 대부 니엘 바이스 저자의 대담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구체적 의미에서의 창조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진짜 창조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창조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창조적인 국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적 영역에서 보여지는 '창조력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창조적 혁신'으로 거듭나고 싶은 사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권 천 과장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7



샌드맨 (라르스 케플레르)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다!' 책 표지 문구부터 스릴러라는 장르가 가지는 긴장감이 물씬 느껴지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곧 영화로 소개될 북유럽 베스트 셀러인 이 책은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날 그가 13년간 감혀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비밀경찰국에서 보낸 미모의 비밀요원이 투입됩니다. 이후 밝혀지는 범행의 진실과 연쇄 살인범의 정체는 마치 영화 <양들의 침묵>을 연상시킵니다. 범인과 경찰의 흥미진진한 두뇌게임,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긴박한 사건 전개로, 완성도 높은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지루해질 틈이 없어, 단숨에 읽어버리고 마는 이 책을 무더위를 잊고 싶은 사우들에게 추천합니다.

한선미

현대중공업터보기계 글로벌영업그룹

8



어쨌거나 마이웨이 (안드레아 오언)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이 책은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52가지 계획을 소개합니다. 더 이상 남을 배려하느라 상처받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독자를 위해 미국 공인 커뮤니케이션 코치인 저자가 멋진 '마이웨이'의 길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단계적인 실행법을 제시하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내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할 때의 기쁨을 전해줍니다. 주변을 의식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쉽게 상처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우들은 이 책의 지혜를 통해 유쾌 통쾌한 마이웨이 인생길로 들어서 보길 바랍니다.

고연우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미혼인 추대리는 코와 이마를 조금 매끄럽게 다듬고자 의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 주며, 효과가 좋고 간편한 시술이라며 필러 시술을 추천하였습니다. 추대리는 '남들도 하니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에서 제공한 시술동의서를 읽지도 않고,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서명하였습니다.

시술 후 의사는 초반에 좀 붓기가 있지만 3~4일 내 필러가 자리를 잡으면 붓기가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일이 지나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추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의 계약 및 법률상 의무

법률용어로서 계약이란 '상호 대립하는 의사 표시의 합치'라는 의미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나 시술을 요청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나 시술을 하기로 승낙하면 의료 계약은 성립됩니다.

의료 계약이 성립되면,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최선의 의료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진료 의무) 다만 최선의 의료적 조치만 하면 되지 아니하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행위의 절차나 분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비밀 준수 의무) 또,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하며(진료 기록 의무), 환자가 치료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 진행 상황, 치료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설명 의무)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상해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전형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주의 의무)

의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 방안

의료 행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의료 사고),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 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의료 분쟁)

그러나 대부분 의료 사고는 환자와 의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는 의사가 진료 의무를 다하였는지 또는 실수를 하였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분쟁에서는 입증의 비교적 간단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추대리의 경우

의사가 추대리에게 제공한 시술동의서에 필러 시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의사가 직접 시술동의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면 추대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입증될 수도 있으니,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사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시술동의서를 꼼꼼히 읽은 후 시술 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이달의 표지 주인공



이수민 양(교동초 2학년)
이상충 과장(현대중공업 플랜트소재운영부)의 자녀

“아픈 물고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화가가 돼서 슬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는 수민 양의 그림에서
는 자연을 아끼는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민 양은 어느 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고 바다도
아프다는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니는 현대중공업에서
바다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멋진 선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자라고, 하얀 꽃이 피어있는 선박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민 양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친절한 엄마, 달라기를 잘하는 아빠, 장난꾸러기 동생 준성아와 함께 늘
즐겁고 행복하다는 수민 양.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수민 양이 사우 여
러분들에게 귀여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삼촌, 이모 언제나 밝게 힘내세요. 파이팅”
앞으로도 수민 양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 변치 않길 기원할게요.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 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7

Contents



10

04 현대중공업그룹 상반기 임원 인사

기획 독립회사 탐방

③ 현대로보틱스

06 소개합니다

08 윤종근 대표이사 인터뷰

10 새등지, 새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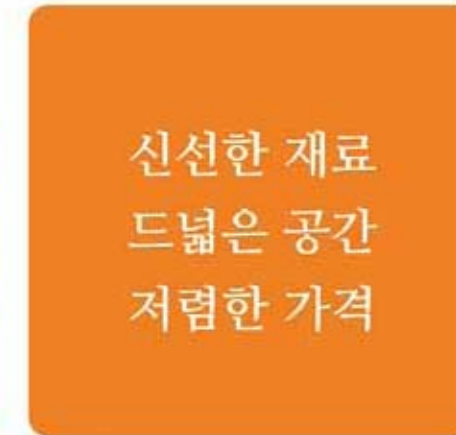
기획 건강한 삶, 즐거운 일터

12 임직원 건강이 회사 경쟁력!

14 생생 도전기

16 건강하게 여름나기

18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단체 모임, 행사 장소로 안성맞춤 한마음식당

가족과 함께 편안한 공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즐기는 중식·한식·양식의 다양한 메뉴

홀 270석

프라이빗 룸 5개 212석

한마음회관 2층

영업시간

AM 11:00 ~ PM 21:00

예약 | 052-209-7979~80

마음을 담습니다
한마음식당
HANMAEUM RESTAURANT

고강도 작업장치 / 구조물

- ▶ 내구성이 강화된 볼 / 암
- ▶ 고부하 작업에 특화된 차체 설계
- ▶ Hi-grade 호스 적용

IT Convergence

- ▶ 스마트폰 연동 피라케스트
- ▶ 예고게이지 레벨 및 연비 운전 정보
- ▶ 오디오 시스템 · 핸드프리 및 스마트폰 연동 음악재생

편리하고 안전한 솔루션

- ▶ 필터 중앙집중식 배치
- ▶ 잠수병 예방오일 및 필터
- ▶ 접근성이 높은 요소수 주입구
- ▶ 미물집중배출 방지 컨트롤

저연비·친환경 Tier-4 Final 엔진

- ▶ 국내 최신 배기가스 규제 (Tier4) 만족
- ▶ 견고한 사시 마운트 구조로 내구성 증대
- ▶ 벨로우즈 파이프를 통한 진동 저감, 후처리 장치 보호
- ▶ 최적화된 엔진 설정으로 저 RPM에서 높은 토크 발휘
- ▶ 탁월한 연비절감 효과
- ▶ 오토 셋 다운 기능 / 오토 아이들링
- ▶ Deaurex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현장을 지배하라!

현대건설기계 HX시리즈 HX145CR

강력한 작업 능력을 위한 친환경고성능 Tier-4 Final 엔진-
최소화된 후방 선회 반경의 탁월한 공간 효율성-
최첨단 IT컨버전스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높은 편의성-
월등한 힘과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는 HX시리즈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도 함께 진화할 것 입니다.

MOVING YOU FURTHER